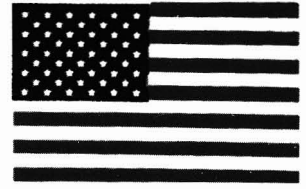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206) 362-4500

JOO CHAN CHAI - Publisher  
JAE HONG KIM - Editor



# 한인회보

1988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Ap.-A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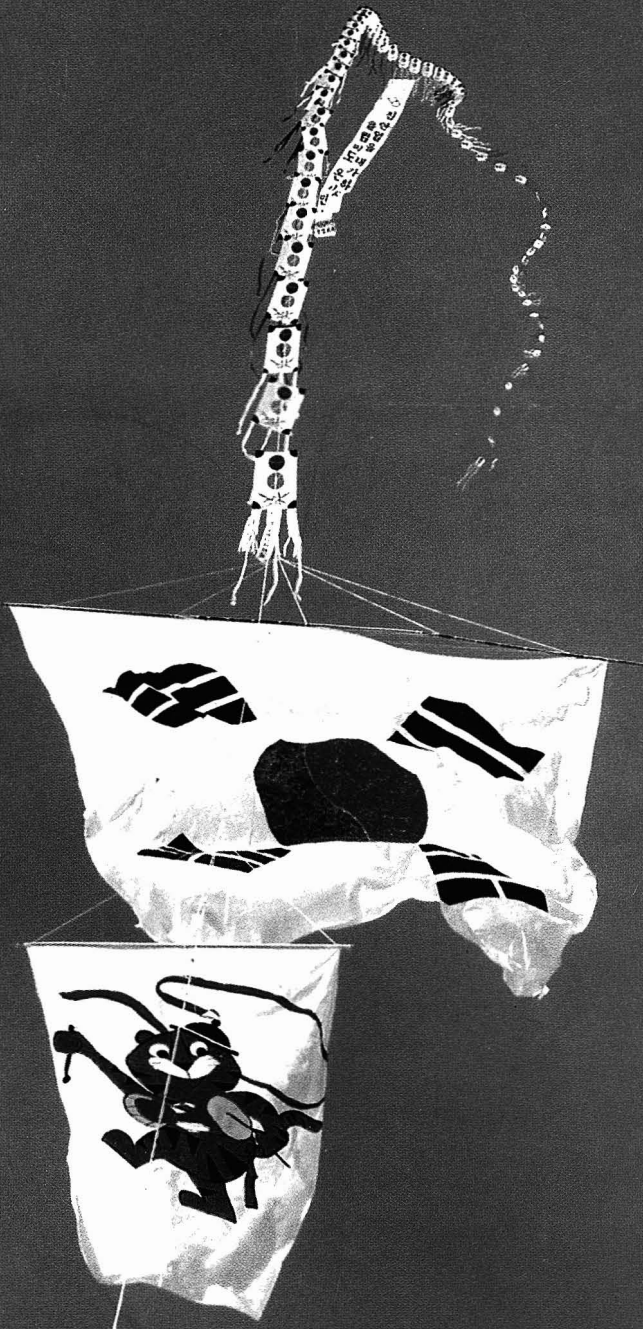
한인회보

【4 ~ 8호】

“올림픽 특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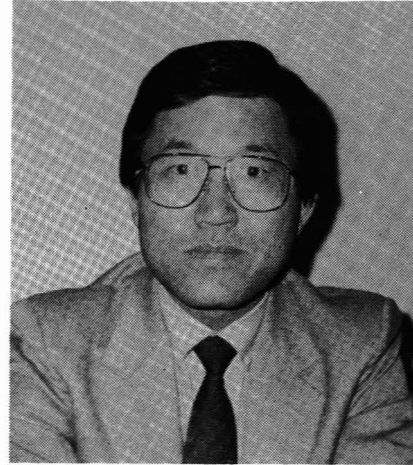
(중요내용)

- Sea Fair Parade
- 그리스 올림피아 여행기
- 서울올림픽 현황
-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 내가 걸어온 한인회
- 행복한 인생
- 한인회 동정
- 한국의날 기념  
백일장수상작 발표
- 기타



# Century 부동산

사업체매매, 주택매매, 아파트 상가매매  
ESCROW 업무, 각종공증업무, 용자알선업무



**223- 8949**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성실과 근면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Century 부동산을  
찾아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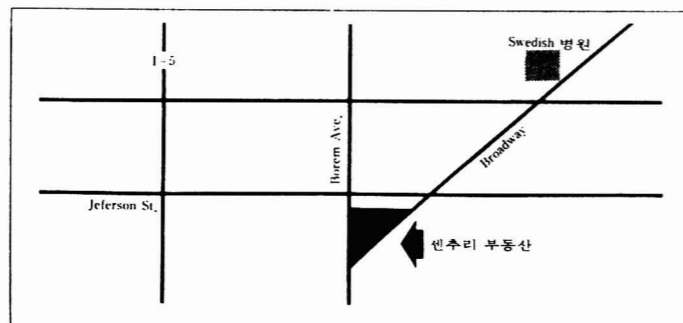
- ◆Multiple Listing Member
- ◆Commercial Broker's Association Member
- ◆Match National Corporation Member

대표 윤상인(Sam Yun)

변종혜 775-6976

정문언 367-8705

유준명 941-6234와 1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400 BOREN AVE  
SEATTLE, WA 98114**

## - 목 차 -



1. 권두언(봉사정신) .....	한인회장 최주찬	4
2. 한국의날 기념 백일장 수상작 .....	편집부제공	5
3. 행복한 인생 .....	김상구목사	7
4.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	김병섭장로	10
5. 이름에 대한 이야기 .....	김형달이사	12
6. 이민생활과 정신질환 .....	홍인표박사	14
7. 증권투자란 무엇인가? .....	최한준(투자상담관)	16
8. 올림픽아 순례기 .....	최주찬회장	18
9. 인물스케치(보통사람 제1호) .....	Kim's Auto 김청작씨편	20
10. 올림픽현황 .....	편집실제공	21
11. 한인회동정 .....	편집실제공	24
12. 사진으로 본 한인회 행사(화보) .....	편집부제공	28
13. 교민사회 동정 및 소식 .....	편집실제공	33
14. 내가 걸어온 한인회 .....	박태호 전한인회장	35
15. 미 대통령 어떻게 뽑나 .....	편집실제공	38
16. 골프의 기원(최경록 칼럼중에서) .....	편집실제공	39
17.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	신성균	40
18. 당뇨병이란? .....	김순희내과의원장	42
19. 시 「바람이여」 .....	김희자	44
20. 동화 「꿈마차 황금마차」엄마와 함께 읽는 어린이 위한 동화 .....	박숙희	45
21. 한인회비 건립기금 및 페난트 판매내역 .....	편집부제공	48
22. 한인업소전화 조건표 .....	편집부제공	55
23. 편집후기 .....	편집부제공	58

### “봉사정신”

한인회장 최주찬



지금으로부터 13년전 내가 세계일주여행을 할때 미국 여러지방을 순회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만해도 큰도시 몇군데를 빼고는 한국사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더구나 한인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는 도시도 몇안되었습니다.

각 도시를 여행하면서 관광안내소에 들러 그지방의 명승고적이나 볼만한곳을 문의하면서 나는 미국사람들의 친절과 봉사정신을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짧은 영어실력으로 손짓발짓 해가며 길을 묻거나 무슨사정을 이야기하면 상냥하게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가르쳐주는 미국인들에게서 신사도를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어떤사람은 자기차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내주기도 오히려 "Have a nice day"라든가 'Have a wonderful trip'이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고 돌아가는 모습은 천사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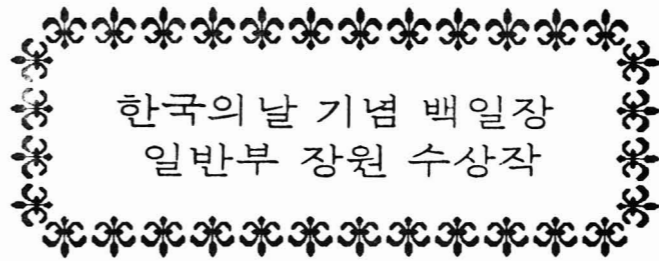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어렸을때 나의 기억으로 는 길을 물으면 "저리로 가봐"라든가, 보통은 통명스럽게 턱으로 방향만을 가르쳐주고는 재차 무엇을 물어볼 여유도 주지않고 가버리는수가 많았습니다. 이러고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또 한가지 감탄한것은 각 도시의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거나 큰회사에서 평생을 일해온 중역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도 퇴직금과 자기재산등으로 넉넉한데, 아직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젊어서 못했던 사회봉사를 지금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심입니까? 그들은 자기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정도 봉사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봉급도 받지않고, 점심값 정도나 차비정도만 받고 친절하게 봉사합니다.

그들은 그 고장에서 비교적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젊은사람들보다는 그 도시에 대하여 아는바가 많고, 역사적인 내용도 더 많이 알기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발룬티어 정신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곧 오늘의 미국을 이룩한것입니다.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 한국을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힘찬 현실을 보여주자고 외치면서 "한국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협조하는 모양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한국을 내걸고 우리의 얼을 미국사회에 보여주자고 하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이스라엘"을 위하고, 유대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간단히 하나로 뭉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도 그런날이 속히 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나라에서 살아도 여전히 한국사람임을 스스로 느끼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날 기념 백일장  
일반부 장원 수상작

## 고국에 보내는 편지

임광순 (주부, 간호원)

당신의 품을 떠나온지  
길고 외로운 십여년,  
백두와 한라산 그려보며  
잠못이룬 나날들,  
꿈에도 잊지 못할  
내강산 내조국!

오늘, 우리민족 여기모여  
푸른 창공에 태극기 휘날리고,  
노래가락 덩실덩실  
흥겨운 쟁파리 두드리니,  
아!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웁습니다.  
이대지도 고운 옷들  
이대지도 고운 마음들  
한겨레 인것을...

이제, 곧 호돌이 앞세우고  
세계에 "KOREA" 뒤흔들  
1988 올림픽!  
우리 겨레 모두  
한마음되어  
뜨거이 뜨거이 뭉칩시다.  
우리들의 뿌리요  
어비이신 당신!  
건강과, 영원하신 번영을  
기원하며,

당신께, 지금  
한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 나의 조국 한국

치가 떨리는 일제침략의 암흑시대에서 벗어난 지 5년 우리는 또 한번 큰 시련을 당했다. 민족상잔의 비극, 바로 6.25였다.

그 6.25가 벌써 38년전의 역사가 되버린 지금 우리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또한 놀랍게도 이번 88년 올림픽은 한국의 서울에서 당당히 치르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어 HYUNDAI EXCELL, GOLDSTAR, Made in Korea 가 미국시장을 누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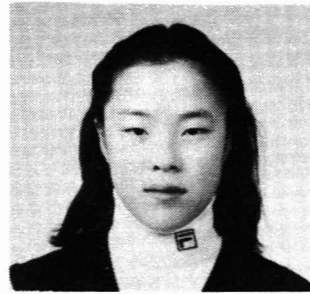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국민의 자세는 어떠한가? 더구나 특별히 서로 돕고 아껴야 할 교포 사회에서는 또 어떠한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친구와 뒷사람을 아끼고 공경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만, 나만 생각하고 생활할 때가 많다.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던 우리민족의 정신 상부상조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우리의 협동과 단결정신은 어디로 갔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서 협동과 단결정신을 발휘해서 오늘같은 날 자신이 자신의 쓰레기만 책임지고 수거하면 왜 땅에 쓰레기가 쌓이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바쁜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야말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 책임감을 갖고 다른사람의 본이되어 살아야겠다. 나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조

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아울러 「나 한사람쯤이야...」가 아닌 「나 한사람만이라도...」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외교관이다. 나 자신이 조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민족외교」를 해볼이 어떠할까? 너 무 남만 의식하며 사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 걸치레라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내 행동하나가 남에게 그리고 나 자신 더 나아가 내조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볼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우리 모두 자신을 역할을 열심히 다하자. 아빠는 아빠로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으로 부양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식은 학생으로서 공부열심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모두 힘을 합쳐 즐거운 가정을 꾸려나가자. (극소수의 일이지만) 요즘 우리는 뒷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던 우리민족의 전통과는 달리 서로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못받은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없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그러하다.

아무리 바깥에서 속상한일이 있었더라도 가족들과 대화함으로써 다시 웃을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 얼마나 좋은가?



최자영 (Kilo 중학교 8학년)

예로부터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가 전쟁후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국민 서로가 가족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협동한다면 그 부족한 점들은 금방 보충될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잊지않고, 누가보아도 자랑스런 나의 조국 한국을 만드는 멋진국민이 되는것이 좋지 않은가? 나의 조국하늘보다 낮은 하늘아래서 맞는 6.25 38년.

6.25가 40년을 맞은 날에는 나의 조국한국과 함께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늘에 흩날리는 구름을 바라본다.



## 【행복한 인생】

김상구(시애틀한인장로교회 목사)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즈음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불행하다는 탄식소리를 듣고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할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대신 불행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곳에서 행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되고 아무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도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행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도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도 참 행복을 못 누리고 늘 근심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은 재물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부귀공명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만사가형통하는곳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것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과거에서 찾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미래에 있는것으로 생각을 하여 사람들은 늘 행복을 추억하며 살거나 행복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행복을 누리고 살지를 못 하기가 쉬운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 나와 이세상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외부로부터의 어떤 조건의 만족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이 이 좋은 예입니

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행복을 얻어 누리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가져도 늘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마음은 한없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항상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두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산한 어떤분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의 합법적인 교묘한 속임수로 그는 부자가 되고 자신은 망하게 되자 다시 사업할 생각은 아니하고 늘 그를 미워만 하여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미워하면, 미워하는 자신만 불행해지는것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위해 축복하게 되었을때 그는 비로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교훈을 말할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까지 명령했습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원수를 두고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위해 축복을 빌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금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상금이 바로 참 평안과 참 행복의 상금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손에 못박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빌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사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또 기억할 일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그 마음은 화평을 맞보실 수 있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를 고백할 수 있었음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참 행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질 때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워하면 다가지고도 불행해 집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을 미워할 때 왕으로서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미워하며 잡아 죽이려 다닐 때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사랑을 사랑하되 자기를 꺾바하고 멸시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그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거든 당신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기뻐하시니라.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하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깨닫고 열렬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행은 무엇이 없어서 아니고 사랑과 용서가 없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행은 직장이나 돈이 없어서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시면 어서 속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물론 우리도 행복하려면 물질과 나의 외의 관계에서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만 내 것일 뿐 이 물질은 내 것으로 누리질 못합니다. 내 물질을 내 것으로 누리는 순간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새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새차는 원차와 똑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가 새집을 마련하고 살게 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엔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기면서 우리는 아파트 살 때나 새집에서 살 때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보다 많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한 근심으로 불행한 사람이 더욱더 많습니다. 다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안간힘과 짜증과 짜증입니다. 물질과 나 사이에 선 감사해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하면 현재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파스칼은 그의 저서 광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진공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진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만 감사할 때 채워져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안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는 것은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길거리에서 한 통에 들은 물을 다른 통에 붓고, 다른 통의 물을 또 먼저 통에 붓는 일을 되풀이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이 일을 8시간씩 하는 사람에게 \$100씩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은 쉬운 일이라고 지원을 했지만 몇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다 그 일들을 못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나갈 때 교생이 되어도 그 교생에 의미가 있으면 그 교생은 견디어 가지만 호감을 해도 의미가 없으면 지루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도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시면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의 만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지고, 물질과 사람이 감사로 맺어지고, 나와 나 사이가 의미 있는 생활로 맺어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 앞에 감사하며 의미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 \*

## Lakecity Way의 사진관

- 1 Hr 완전치리(현상·인화)
- 출장 촬영 전문
- 비디오회영 전문
- 사진 여권(증명)사진



12333 Lakecityway N.E.  
Seattle, WA 98125

☎ 362-1694

Bus M-F 9:30-5:00  
Sat 10:00-6:00

## 泰和閣

Restaurant  
MANDARINE CUISINE

### ● 한국식중화요리

### ● 수타국수

영업시간 : 11a.m.~10p.m.(일~목)  
11a.m.~11p.m.(금,토)  
주 소 : 6312 Bothell Way N.E.  
Seattle, WA 98155  
전 화 : 485-4020

### 새로나 식품

☎ 839-6255



언제나 신선한 맛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신선한 분위기 속에 신선한 가격으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합니다.

■ 연중무휴 9AM-9PM  
31260 Pacific Hwy S, #112  
Federalway, WA 98003



##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김병섭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서북지역지부장)

정병 1988년대에 우리민족 회생의 역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 배달민족으로 일궈어지는 우리 겨레가 단군개국 이래 반만년의 연면한 민족역사를 가꾸어온 보금자리인 한반도가 한민족 스스로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열강에 의해 1945년 국토분단의 수모를 당하며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6·25로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운채 43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증오하며 살아왔다. 참으로 가슴아프고 슬픈일이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어 문득 보고싶고 만나고 싶어지면 지구촌 어디라도 찾아가 만날 수가 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고 싶어져 전화를 하면 즉시 정다운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다. 그곳이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구공산권이라도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고향을 지척에 둔 우리들은 부모형제 친구들의 생사는 물론 정다운 음성조차도 들어보지 못한채 43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한을 알고 살아왔다.

내가 태어난곳은 평양교외의 대성산 밑에 있는 장수원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향땅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 닿는다. 나의 진짜가 자란곳 내가 배우고 꿈을 키운곳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곳이다.

나는 일제말기에 신망학교 교장으로 어린이들에게 학문을 일깨워주다가 일제 총독부로부터 폐교령으로 학교문을 닫고 얼마 안있다가 꿈에도 그리던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였다.

해방후 나는 평양에서 기독교 자유당 창당에 참여하여 조직책임자로 활동하던중 평양에 진주한 공산군에 의하여 체포령을 받게되어 처고모댁에 은신하고 있다. 가 일단 남하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갔다.

저녁놀이 들 무렵이었는데 마침 파수원 마당에 계시던 아버님을 뵈울수가 있었다. "아버님, 제가 잠시 동안만 남한으로 피신하여야 하겠습니까."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지금가면 언제 오느냐?" "네, 곧 돌아옵니다" 이 두마디 대화가 아버지님과 나와와 마지막이 될줄은 상상도 못 할일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일이다. 내 일생중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한 순간이다.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면...나는 이 후회와 한을 안고 지금 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이런 비극이 나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고향을 등진 1천만이산가족 모두에게 후회와 한이 있을것이다. 아니 6천만 한민족 모두에게 있으리라.

이 지구상에는 190여개의 나라가 있다. 이 많은 국가들중 우리와 같은 비극과 한을 안고있는 국가는 내나라 밖에 없다. 남북이 갈리어 20여년을 넘게 싸우다 미국으로 피난을 해온 베트남 민족도 자유롭게 서로가 소식을 주고 받는다. 아직도 동파서로 갈라져 이념과 체제가 완전히 다른 독일도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못하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따져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은 한시바빠 찾아보고 만나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노태우 대통령은 참으로 훌륭한 결단과 결정을 하여주었다. 7.7 성명은 벌써 오래전에 나와야 했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번 흘러간 물이 어찌 되돌아올수 있겠는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재미교포는 누구라도 그렇게 그리던 내고향 산하를 찾아갈수 있게 되었

으니 43년 긴 세월 우리들 마음속에 짙이깊이 간직하였던 소원을 한시바빠 이루어야 하겠다.

한결음 더 나아가 외세에 의존없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존치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교포 한사람 한사람이 한장의 통일외의 돌이 되어 38선 선상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위에 통일의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겠다.

틀림없이 우리들 이런 마음이 조국산하에 메아리치리라 확신하다.



한인회

시손민대에...

길이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 우리들...

앞을 달려서

동철진 우리의 혼

지켜온 우리의 혼

키워가야 할 우리의 혼

한인회

VALUABLE COUPON

교정 및 의치전문

# 라베나 치과

최고의 품질 · 최저의 가격

- 독일 및 미국 치과의사 자격증 소지
- 한국인 부인과 조수가 봉역
- 킹카운티에서 두번째로 큰 치과병원

본원에서는 철저하게 최신 악용요법을 사용하여 증세에 따라 마취나 드릴을 하지 않고 오직 환부만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의치

-폼포먼트(상하 완전의치 \$548,00)

라베나치과의 모든의치는 직접 제작·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치열교정 - 풀이 인절 (케네파 포도인도 메란치로 가능)

검사 스케이링 X-레이 플로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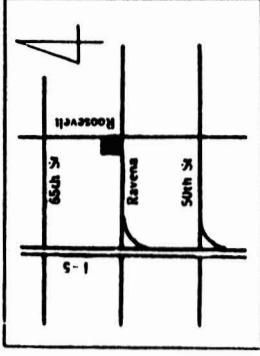
ALL AT 1/2 PRICE

DR. I. R. HOLTZ

525·6181

916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15

VALUABLE COUPON



## “이름에 관한 이야기”

김형달(한인회 이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이름이 주어진다. 그 후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름이 개명될 수도 있고, 본명 이외에 새로운 이름을 갖기도 한다. 또한, 본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세상실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기도 한다.

자의에 의해 지어졌던, 타인의 의사에 따라 지어졌던, 어떤 경우던 이름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또는 즐거운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김형달”이라 지어 주셨는데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름을 자의던, 타의던간에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다.

국민학교 시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는데 일본정부는 한국민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고집에 세셨는지(?)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셨다. 내가 3학년(1944)때, 담임선생님(일본인)께서 “왜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지 부모님께 여쭙고 오라”고 명하셨다. 그때 우리 학급에서 나만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버님께 그 이유를 여쭙었다. 아버님께서 그때 심기가 언짢으셨는지, 간단히 “우리는 죽어도 창씨 개명을 안한다”라고 대답하셨다.

다음날 그 이유를 묻는 선생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나는 “우리는 죽어도 창씨개명을 안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날 나는 호된 처벌을 받았고, 다음날 어머님이 학교에 불러 가셔서 “훌륭한 황국국민으로 자식을 키우지 못함을 사과하고, 시말서를 써야하는 곤경을 겪었다. 이는 이름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제1호. 그 후 1년이 채 못되어 우리는 8·15 해방을 맞았다.

중학교 학창시절 급우들은 내 이름을 이용하는 “선달”(봉이 김선달에서 땀)이라 부르더니, 고등학교 시절엔 “건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건달기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 별명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건달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억울함 제2호. 자유당말엽, 내가 대학을 졸업할때쯤, 문교부에서 “한국 고유명칭의 영문표기 통일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데 “매”은 “G”로 표기하게 되었고 선량한 시민(?)인 나는 “김”을 “Gim”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 “Gim”이라는 표기는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결정이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나의 아들 딸들은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Gim”이라 표기한다. 그 당시 정부기관에서도 김포공항을 Gimpo Airport로 경기도를 Gyoung Gi-Do로 표기했다. 그러나 김씨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그대로 “Kim”으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생활에서 “Gim”이라고 표기하니, 나를 “킴”이라 부르지 않고 “김”이라 불러주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한국관련업체, 기관에서는 “Gim”의 표기로 쓸쓸한 경우를 겪기도 한다. 한예로, 항공기편을 예약할 때 본명이 “Gim”이라고 했는데 친절한 한국분께서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Computer에 Kim으로 기입을 해 막상 탑승시 Gim이란 사람은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 육식각신 한탄일, 오랫동안 이곳을 방문한 친구가 전화번호부 “Kim”란에서 나의 이름을 찾지 못해 그냥 떠나는 섭섭함, 이외에도 Gim이란 표기를 30여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단체나 친지들이 보내는 편지는 70%는 아직도 Kim으로 표기한다. 이렇듯, Gim이라는 표기는 주로 한국사회에서 불편함을 주는 반면 Hyoung(형)이라는 First Name은 미국사회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히 영” “하이 영” 또는 “영”으로...

그래서 완전 자의에 따라 새로운 별명을 만들지 않는 한 불편함이 계속될 것 같아, 직장에서는 Hyoung에서 Hy만 부르게 했는데 “하이”라는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서 그 활용도가 좋았다. 18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사명함, 문서 기따 모든 서류에 Hy D. Gim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 이름은 Hyoung D. Gim. 하여간 직장에 출근하면 동료들의 인사말은, 하이, 하이, Hy, Hi라고 했을까 아니면 Hi, Hy라고 했을까.

아들의 이름은 “김한규” Han Gim으로 표기한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내가 결정하는 오만(?)을 저질렀다. 이 아들이 국민학교 2-3학년때쯤 “Dad, I Wanna an American Name”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겪은 억울함 제1호가 생각나서 그 이유를 물은즉; “All Koreans in My Class has an American Name But Me” 그래서 어떤 이름이 American Name이냐고 물으니, “Such as Peter, David, John, Mike and So On.”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 America는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로써 이민이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 예술, 풍습 등이 함께 오는 것으로, Peter, John, David 등의 이름은 유럽 사람이 이민올 때 가져온 것이며, 한국이름도 미국사회에서 사용하면 그 자체가 American Name이 된다는 것 등등... 나의 얕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설명하고 “Could you Understand, Now?” 아들의 대답은 “Yes, But I Stell Wanna an American Name, Dad” 소귀에 경을 읽었나? 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네가 성인이 되어 네 스스로 너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상을 맺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며, 직장도 가졌는데 아직도 “Han”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내가 Los Angeles에 살 때 Mr. 김이란 사람과 친분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의 부인은 일본여자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오래전에 Florida에 살면서, 우리집안과 잘 아는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우연히 목사님 따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Florida에 살 때는 Mr.권이었는데, LA에서는 Mr.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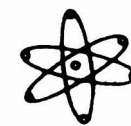
되었으니, 그 정체를 알수가 있어야지” Mr.권이 Mr.김이 되다니, 역시 우연한 기회에 Mr.김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그의 본래 성은 김씨였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형님께서 8·15해방이전에 부인과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후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이 일어났고, 1·4 후퇴시 그는 17세의 나이로 형님을 찾아 단신 월남을 했다.

고생 끝에 부산에서 형수님을 만났으나, 형님은 국군에 징병되어 이미 전사하셨고, 형수님을 재혼을 하신 후였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는 형수님과 친동생으로 인연을 맺고 형수님의 성을 따라 권씨로 가호적을 했다. 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Florida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그 후 직장을 따라 LA로 이사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본래 성인 “김”씨로 바꾸었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불신사조가 많은 한국사회에서는 이 서글픈 한국역사의 이면사의 한 Page를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LA에는 한국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데 내가 겪은 섭섭함들은 Mr.김이 당한 서글픔에 비교나 할 수 있을까? ■

### “K” TV and VIDEO



- 각종 TV, VCR 전속
- 엽기봉사, 무료견적
- 신속 출장수리
- 30년경력

월~토 : 8:00am-7:00pm

152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구연기  
☎ 363-2848

### 이종환 종합무역 도매상사

### LEE'S TRADING CO.

- Hat Specialist  
(with car, sports & many other logos)
- General Merchandise

P.O. Box 4054  
Fed. Way, WA 98063

Jhon (Jong-Hwan) Lee  
Tel. (206) 839-6833  
FAX (206) 946-2719

## 이민생활과 정신질환(우울증)

홍인표 (전 한인회 이사장 전 U.W. 신경정신과 교수, 현 한인의사회 회장)



얼마전 신문에서 본일이지만 L.A. 어디 선가 젊고 아직 할일이 많이 남은 젊은 가족이 이유야 어찌됐던 집단자살(?)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더욱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사진과 나란이 판이 묻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우리를 무엇인가 침울하게 만드는 느낌을 주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불안에 쫓기는 마음같은 묘한 정신질환(?)같은게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사람도 있다. 여하튼 우리는 문명과 문화가 다른 이질문화권 속에 살아가는것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가난이 싫어서 왔건, 좀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왔건,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까지도 현저하게 다른 미국땅에 와서 살아가니까 말이다. 시시각각으로, 소위 한치의 앞도 내다볼수 없는만큼이나 빠른속도로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다.

이제는 문명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것이 아니고 문명의 지배속에 인간이 살아간다고 봐야 할것이다.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두뇌는 더욱 복잡해지고 또 그 한계성을 넘어설때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상현상이 돌출하여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고 또 어떠한 질환으로 나타난다는것이 현대의 학의 중심론이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신경정신과 의사로서의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몇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최근 정신신경질환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내과를 찾는 환자중에 3분의 1은 내과에 갈 필요가 없이 정신신경치료만으로 가능한 환자라고 하며, 즉 신경정신질환에서 유발된 소위 자가 내과환자라는 것이며 또 3분의 1은 내과의 치료보다는 주변에서의 성실한 여러가지 협조로서 치료가 된다고 하며,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내과의 치료를 요하는 순수한 내과 환자라고한다.

불과 얼마전 임상에서의 있었던 실지 사실을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젊은 여성환자가 주기적으로 복통(심한복통)을 느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적이 있었다. 물론 내과적인 각종 검사를 했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단계씩 환자와의 상담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이 어려워지면서 신경질환으로 나타나 복통(복부 주변에 심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난것이다. 물론 큰일없이 하루이틀만에 순수하게 신경정신과사로서의 상담만으로 완치가 되어 퇴원한 사실이 있다.

즉 그것은 내과적인 질환이 아닌 신경정신부분의 한 단면이 육신의 한부분에 질환으로 돌출된것이다. 신경정신 부분의 이상현상을 육신으로 옮겨 꼭 복부통증뿐만이 아닌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못지못할 사실중의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의 60-70%가 이러한 잠재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 언제 돌출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환경의 변화(문화, 문명, 주의환경등)가 큰원인이 될수 있고, 여기에 따르는 사고의 변화(생각의 변화) 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좌절감, 자기자신에 대한 불신, 젊은층에서는 이성문제등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민 생활로 인한 이질문화권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불안감, 인종차별에 대한 좌절감, 자신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학대, 자포자기등이 있을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정에서의 가장(한국적 사고방식)으로서의 부족감, 열등감,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응이 빠른점 등등을 열거할수 있겠다.

이 모든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지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례중의 하나이며 어느것 하나도 경시할수 없는 사실이다.

한가지 예를 소개하면 자의든 타의든 남편의 반대에 의해 미국생활 10년이 넘도록 부인이 운전을 못하는 예를 볼수있다.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성(테스트 네임)이 부르기가 거부하여 Kwon을 Lee로 바꾸는 예도 있었다. 이 모든경우가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감, 불안감, 적응력의 부족에서 생긴 예라 할수 있다.

일단 이러한 원인으로 발병이 되면, 불면증 매사에 짜증스런 태도, 나아가서는 남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항상 침묵을 지키거나 작은일에 짜증을 내고, 화가나면 무엇인가 던져 꼭 깨뜨려 버리는 성질이 발생, 정도가 심해지면 혼자서 울다가 혼자서 웃다가 하는 증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진단 아래 입원요양해야만 한다. 치료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방법은 주의환경을 바꿔주며 항상 환자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여 스스로 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물론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바람직 하지않으며 주의에서 상담, 썬포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정신 전문의사와의 상담이며, 교회같은곳에 출석하여 여러사람과 대화를 하도록 분위기를 바꿔주고 또 여러 사람속에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게하여 자신의 처지나 위치를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일이다. 운동등은 정신을 통일할수 있으며 건전한 정신을 가질수 있기때문에 좋은 치유방법이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선수들간에는 정신신경질환 환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최근 우리 주변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문제, 또 우울증에 따른 가정적 불행은 얼마든지 볼수가 있다.

물론 이민이란 특수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다. 특히 그저 공부할 책이나 사주고 용돈이나 주고 부모가 원하는식의 일방적인 가정교육도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부부가 일년에 한번도 쉬는 날없이 무미 건조하게 직장에서 돈벌이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생활방식을 뜯어고치고 자신들과 아이들의 정서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또한 정신질환을 예방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 PBI REALTY 박길부 부동산

BUSINESS · 상업용건물

그로서리·크리너

샌드위치샵, 모텔, 쇼핑센터

Kil Boo Park

932-4522 (집)

624-6671 (OFFICE)

83 King St. #601 Seattle, WA 98104



## 증권투자란 무엇인가?

최한준(공인투자상담관·메릴린치 증권 회사근무)

증권이란 무엇인가?(간추려서)

모든 증권이 정말 다 위험한 투자인가? 그리고 「위험」하다는것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증권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실지로 위험부담이 크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 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과는 거리가 있기때문이다. 한예로, 투자상담관과의 개별상담없이 무턱대고 하는 투자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후에 이루어진 투자에는 차이가 있으며 위험률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가지 상품을 소개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져 한다.

### 1. 증권과 주식

영어 표기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전자 증권은 Securities이고 후자 주식은 Stock이라 한다. 증권이란 큰 의미에는 주식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밖에 회사채권, 주정부채권, 연방정부채권, 투자신탁을 비롯하여 여러 투자상품이 있는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 우리들은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된 이곳에서의 개념 차이가 있을수 있는것이다. 또 한국의 경우 주식이 증권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였던 관계로 증권은 즉 주식의 관념을 가질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가끔 전화로 「요즘 증권시장이 올라간다는데 혹은 내려간다는데?」하는 진물을 받곤하다. 이러한 질문에 즉석에서 어떻게하고 대답하기란 정말 어렵다. 구태여 낱말 풀이를 하려는것은 아니지만 증권투자 하나를 소개 하므로써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져 한다.

### 2.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증권투자)

위험이란 원금에서도 손해볼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하겠다. 소위 이자율에 따른 위험과 인플레이에 의한 위험이다. 어찌됐던 개념상 원금에서 손해보는것을 통상 위험한 것이라 하기때문에(이 경우를 캐피탈 리스크라함)그렇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증권투자중 대표적으로 국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우선 국채보다는 「세이빙 본드」라고하면 흔히 들어 본일이 있을것이다. 두가지 다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빌린돈이지만 차이가 있다. 첫째, 「세이빙 본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만기전에 해약을 하는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채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시라도 팔수 있는것이다. 둘째, 「세이빙 본드」는 50불, 75불, 100불, 200불, 500불, 1,000불 단위이고 국채는 1,000불을 단위로 1,000, 2,000으로 거래가 된다. 고로 적은 돈을 가진 투자가는 「세이빙 본드」밖에는 살수가 없는 것이다.

또 국채는 세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티·빌」은 1년미만 만기의 국채를 의미하고 「티·노트」는 1년에서 10년미만 그리고 「티·본드」는 10년 이상만기 국채를 의미 하기도 한다.

또한 「세이빙 본드」와 같은 장점을 가진 「제로 쿠폰」의 특징은 「제로 쿠폰티」가 미국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는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증권투자에는 그 목적하는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제로 쿠폰티」는 자녀 대학 학비 조달에 절대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학비는 어느 시점에서 정

해진 금액 얼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투자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의 주식으로 만들어진 「뮤추얼 펀드」도 있으나 더 안전하기 위해선 「제로 쿠폰티」를 택하게 되는것이다.

둘째, 또 어느시기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투자관들과 상의하면 현재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가를 정확히 알수가 있고 또 정부보증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셋째, 몇년 몇월 몇일에 필요한 금액을 컴퓨터에 의해 쉽게 살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넷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금리 보다는 높다.

다섯째, 국채의 개념에서 말했지만 만

기 이전 아무때라도 팔수있으며 컴퓨터에 의해 얼마에 팔린다는것까지 정확하게 알수있는것이다. 단,능력을 갖춘 대형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본문 내용을 간추린다면 증권투자에는 주식을 포함하여 여러가지가 있으나 위험과 그에 상응하는 이익 가능성이 비례한다는점과 이중에서 국채에 투자하는것이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보다 안전하다고 할수있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물론 많은 한인교민들이 자녀교육 학자금 마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바 이 글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 두레마을 돕는회에 가입합시다

두레마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만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분들의 공동의 작업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활빈교회는 두레마을을 열면서 <두레마을 돕는회>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로써, 회비로써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써 이 일에 동참하실 동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일생을 이 마을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 두레마을의 회원이 되는길

1. 매월 3,000원 (미국에서 5불) 이상의 정하신 만큼 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2. 회원이 되신 후에도 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자유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3. 두레마을 돕는일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길이 있습니다.
  - 1) 마을, 직장, 교회, 학교 등에서 뜻을 같이하는 10명 이상으로 모임을 만드시오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 2) 개인으로 참여 하실분은 가까운 지역의 두레모임에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남양만 두레마을 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두레 마을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두레마을 회보 및 저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 ◎ 연 락 처

남양만 : (170-26)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111 활빈교회 김 진 흥 목사  
의정부 : (130-31)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산1-1 두레교회 한 응 수 목사

미 국 : Hwalbin Community Mission C/O Dr. J.S. Park  
1527 Fairway Dr. Lima, Ohio 45805 TEL. 419-991-0696  
L. A. 지역 : Hwalbin Community Mission  
P.O. Box 143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213) 737-7297, (213) 386-0158  
Chicago 지역 : Hwalbin Coomunity Mission  
P.O. Box 671 Glenview. I.L. 60025  
TEL. (312) 769-3141 (321) 246-2834

Seattle 지역 : Hwalbin Coomunity Mission  
P.O. Box 25695 Seattle W.A. 98125  
TEL. Lynnwood (206) 745-5453  
Mt. Lake Terrace 775-6153  
Canada 지역 : S.C. Shim  
465. Vaughan Rd Toronto ONT  
M6C. 2P5 심상철 (416) 653-5919, 노철언 (416) 759-4905

워싱턴주 두레마을 후원회



1988년은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을 세계속에 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런뜻에서 필자가 13년전에 회사일로 세계 70여개국을 순방하던중 회랍에 들렀다가 올림픽아드 본거지를 둘러보고 느낀점을 써보고저한다.

금년에는 마침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므로 참고삼아 올림픽의 역사에 대한 내력과 내 소견을 적어보려한다.

원래 올림픽아는 그리스의 모레아 반도 엘리스강분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유명한 제우스신과 여러 신상들이 들어서 있는 성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이다.

○올림픽의 유래와 기원

현지에 살던 희랍 고대인들이 4년마다 모여 신께 큰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추며, 한편으로는 대경기를 개최하여 신을 존경하며 위로하는 뜻으로 행하여진 행사였다. 이경기 장소가 바로 희랍의 올림픽아이며, 이 이름을 따서 올림픽경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후(B.C. 394년 이후)한때 대제사 행위와 경기가 폐지된 적이 있었고, 서기 1896년에 다시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때는 음악과 시낭송등 연예프로를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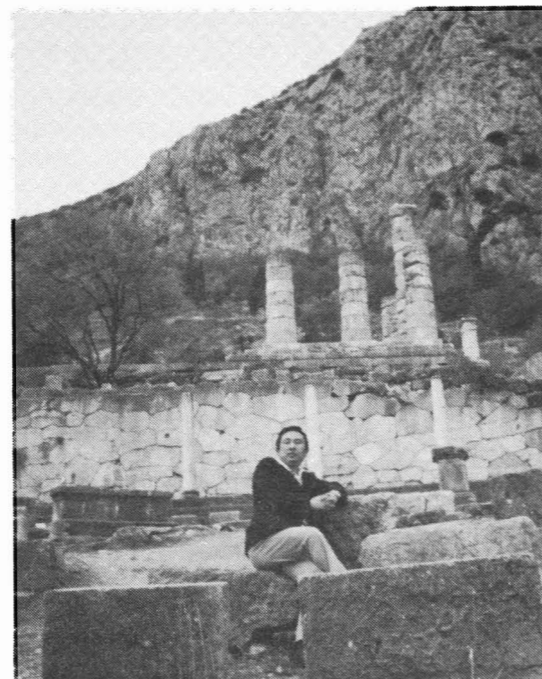
○경기 참가 자격자

- 1)순수한 희랍인 남자, 초기에는(39회때까지) 희랍귀족에 국한시켰다.
- 2)국가에서 죄나 형벌을 받지 않은 남자, 신의 벌을 받지 않은 남자
- 3)신을 모독하지 않은 남자
- 4)10개월간 훈련을 받고, 1개월간 합숙한 후 심판부의 허가를 받은 남자

올림픽경기 시기는 하지로부터 두번째 만월사이에 행하여 졌으며 약5일간 계속되었다. 초기에는 경기종목이 200m 단거리 한 종목뿐이었고, 그후에 26종목으로 늘어났는데 그중 5종목만은 소년들만이 행하여졌다.

승리자에게는 아르지스(Argis)숲에 있는 감람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었다.

이 사실을 조각품으로 남기거나 문인들이 시로 읊어 찬양했다. BC400년경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절정에 달했는데, 고귀한 아마추어 정신은 사라지고 흥행과 프로로 전락되었다. 그후 로마의 압정하에 얼마간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서기393년이며 이로서 종말을 고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189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창설되었고, 희랍의 아테네에서 다시 올림픽경기가 거행되었다. 고대경기장은 대리석으로 개수하여 5만명을 수용할수 있도록 했고, 이때 양치는 목자 루이스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다.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회 올림픽 경기는 성적이 부진했고, 1904년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거행된 경기도 박람회 같은 인상을 주었다.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은 대성공이었고, 그후 1914년 파리에서 2주간 계속된 올림픽경기에서 처음으로 올림픽기가 고안되었다.



1975년 그리스 올림프스산 기슭 부서진 신전 돌기둥에서 올림픽아를 내려다보고 있다.

○올림픽기의 유래

1914년 올림픽의 대부라 할수있는 쿠베르탕 백작이 만든것으로 세계5대주(당시는 5대주였음)의 평화, 융합, 번영, 우의 및 단결정신의 상징으로 5색의 둥근 고리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곧 올림픽정신의 상징이요,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 이상이기도 하다.

특히 이 5색중 반드시 한색같이 세계 모든 나라 국기에 들어있다는점에서 자기 국가를 초월한 인류의 공동 이해정신을 강조하고 있는것이 뜻있는일이다.

1936년 베르린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때 독재자 히틀러가 성화 횃불을 희랍으로부터 가져오게 한것이 횃불 리레이의 유래가 되었다. 그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올림픽 헌장

1925년 성문화된 내용은 쿠베르탕의 의견과 I.O.C.총회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 1)올림픽 경기는 매4년마다 열리고,
- 2)국가의 아마추어 선수로서 공평과 평등의 입장에서 참가할수 있으며,
- 3)인종, 종교, 정치상의 이유로 차별할수 없다. 목적은 아마추어 스포츠맨의 건전한 심신을 진흥시키고, 온 세계가 올림픽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젊은이들을 동원시켜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후부터 올림픽의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강하게”로 세우고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와 힘을 겨루는 선전장으로 화하게 되었다.

한편 올림픽기는 I.O.C.의 독점 소유물이므로 어느누구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하고 있다.

이상으로 대강 올림픽의 유래와 취지 및 목적을 간추려서 소개했다. 금년 서울 88올림픽을 주최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오륜의 상징처럼 스스로가 서로 돕고 융화하며, 협동정신으로 우리사회와 나라에 이바지할때 우리교민사회는 평화스러운 모범적인 커뮤니티가 되고, 우리나라도 세계 열강의 대결에 질수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14년전 Olympia산 기슭에서 마음으로 바랐던것은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올림픽을 치룰수 있다는 막연한 바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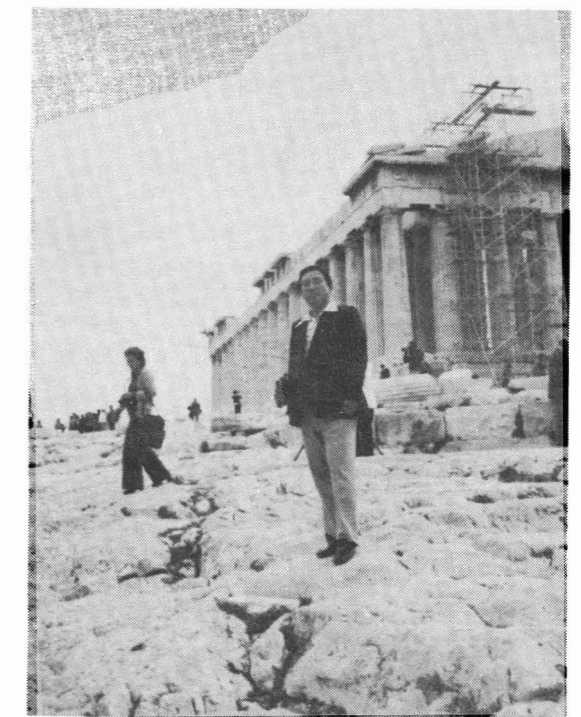
내 가슴속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 다행스럽게도(참가국 164개국, 역사에 처음)1988년도 그 바랬던 기회가 주어진것이다.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이십점 개발국에서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할때 세계속에 한국을 심게되는 자랑과 긍지가 14년전 다시 뒤새겨볼때 가슴이 뚫힐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자랑스럽게 살수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될때 감회가 무량합니다.



오륜기 : 흰바탕에 오대륙의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기이며 왼쪽부터 청, 황, 흑, 녹, 적색으로 5대륙을 상징함.

W자형으로 5개 고리로 연결(즉 : 세계 협력)된 것으로 오륜기 또는 이것을 대회때 쓸때는 오륜대회기라고도 하고 지금 올림픽대회기라고도 한다.



88 올림픽 이동성화로 안치소 점화지인 희랍 파르테논 신전앞에 서있는 필자

# 시설·인력·행사 등 준비 끝내

81년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지 7년. 78일 후면 잠실 주경기장에서 올림픽 팡파르가 울린다.

시설·인력·행사 등 모든 대회 준비를 마무리한 SLOOC는 각 분야의 준비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서울시, 범민족 올

림픽 추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전국민의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

전 국민이 앞장서고 해외교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인류의 제전 서울올림픽. 장내뿐 아니라 장외의 준비를 2회에 나누어 살펴본다.

**시설**  
수영장·선수촌·기자촌을 비롯하여 국제 방송센터가 준공됨으로써 27개 전종목(시범 및 전시종목 포함)을 치러야 할 경기장 34개와 연습장 72개, 관련 시설 6개 등 대회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공되었다. 개폐회식과 육상·축구 결승전 그리고 승마 장애물 비월경기가 펼쳐지는 잠실 주경기장은 6만 9,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실내체육관·학생체육관·실내수영장·야구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올림픽 공원 안에는 1만 5,000석의 체조·테니스경기장을 비롯하여 사이클·펜싱·역도 등 6개 경기장이 들어섰다. 사상 최대가 될 1만 4,000여명의 선수단이 묵게 될 선수촌과 6,000여명의 보도진이 묵을 기자촌은 최신식 부대시설을 갖추고 개촌일을 기다리고 있다.

대회기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에 경기상황을 중계할 국제 방송센터도 준공됐다.

**대회운영**  
대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4만 4,934명. 이중 SLOOC 직원, 지원요원, 단기고용을 제외한 2만 6,000여명이 자원봉사요원이다.

SLOOC는 완벽한 대회운영을 위해 이들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끝내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경기장·행사장에 배치, 현장체제에 들어갔다.

통역안내 요원의 경우 5,563명이 6월까지 교육을 마쳤다. 이 중 해외 동포 365명은 지난 3월 현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대회 1개월 전에 입국, 현장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5월부터 시작된 각 종목별 예행연습은 7월 초까지 마무리되며,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종합 예행연습이 실시된다.

**행사**  
서울올림픽에 따른 갖가지 행사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제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기까지 의 성화봉송로가 점검되었으며 성화도착을 기념하여 제주도에 건립되는 '성화도착 기념조형물'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총 24 작품으로 구성된 개폐회식 공연에는 2만여명이 가까운 출연진이 개별 연습을 마치고 종합연습에

땀을 쏟고 있다.

8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50일간 공연 10건, 전시 24건, 경축 예술행사 7건 등 41개 행사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치러진다.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세계 야외조각 초대전, 세계 현대회화전, 한국 현대미술전 등으로 나누어지는 세계 현대미술제의 경우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동참하는 예술 축전이 될 것이다.

IOC·IF 등 국제회의도 준비를 끝냈으며,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9. 9-15), 서울올림픽 국제 학술회의(8. 21-9. 8) 역시 참석자 확정, 논문 마감을 마쳤다. 예비신청 결과 49개국 937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청소년캠프(9. 13-10. 2)는 7월 말까지 최종 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다.

**수익사업**  
사상 최다국가가 참가, 대회의 성공이 확실시 됨으로써 TV방영권료를 비롯하여 휘장사업 기념주화 등의 수익사업도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안전**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SLOOC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안전조정 통제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전 통제본부는 경기장 경비대·대테러 특공대 등 16개 특수 임무부대를 운영, 대회시설을 완벽하게 보호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보통사람 제1호】



김스오토 김청작씨편

유난히도 따뜻한 햇빛이 비치던 토요일 오전이었다. 짙달막한 키에 약간 앞서리가 벗어진듯한 다부진(?)모습의 김씨가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 「오늘같이 화창하고 좋은 토요일인데 그 흔한 골프 같은 것 안가십니까?」고 묻자 「나는 팔자에 토요일골프같은 것은 못하게 돼있다 모양이다」라고 한마디로 받는다. 어차피 내가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토요일까지 쉬며... 아니면 남한테라도 맡기고 나가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 자존심도 허락치 않고 또 이사업은 누가 뭐래도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흰 스즈키복에 꽤재재하게 기름때가 묻은 작업화는 그의 경력을 말해주는 듯하다. 75년에 이곳에 도착하여 그저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말하면서 그저 열심히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으며, 절대로 하늘이 저버리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에 이민을 오기 위해 한국에서 자동차를 일부러 배운 것은 아니고 학교를(기계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것이 현대중장비 정비요원으로 취업이 되어 그곳에서 충분한 실습을 했고 나름대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뿐이지요」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 와서는 고생도 많았지만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고 그것이 오늘의 전부라고 한다. 또 최근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거금을 헌납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냐고 묻자 「어차피 한인회는 남의 일이 될 수 없으며 누군가는 해내야 하는 우리 한국인의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사명감 같은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던 차에...」 하면서 남들은 없는 시간을 내서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한인회에 봉사를 하는데 대하여 같은 한국인으로 항상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나

는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못하는 만큼 그 부담으로 작은 성의를 표시했으니까 라고 겸손을 잊지 않는다.

또 그는 등글지 못한 성격으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단다. 이 직업을 택한 이유나 혹시 불만 같은 것은 없느냐 묻자 「그저 최선을 다할 뿐...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도 역시 기계라 서인지 100%는 보장 못하나 그저 정성과 열심히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이 오늘의 김스 오토일뿐이죠」라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부인도 숨어서 남몰래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독지가라고 들곤 했다.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학교에 아이들의 간식등을 혼자 도맡아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말아서 소리없이 해내는 분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교민사회에서 자동차정비 사업부분에 성공(?)했다는 김씨 가족은 정말 멋있는 삶은 살아가는 듯하다. 누구의 말대로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는 교훈을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든다. 직업상 철저하게 워크엔드는 갖지 못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철저히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것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한때는 조기축구회 회장직도 맡은 건 강관리파이기도 하다. 아내와 아들들, 딸 하나에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며 고향은 울산 촌놈이란 다.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수없이 걸려오는 고객들의 전화에 세련된 영어로 바쁘게 대답을 해댄다.

그는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요즈음 우리들은 「보통사람」이라고 부르나 보다.





## 【한인회 동정】

### ●한국의 날 행사 :

1988년도 한국의 날 행사가 유례없는 규모와 유례없는 축제분위기속에 지난 6월 25일 타이고등학교에서 전현직 한인 회장, 이사장 및 임원이사과 이지역 교민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벌어졌다. 특히 미국 킹TV에서도 뉴스시간에 비교적 길고 좋게 보도하여 미국사회에 한국을 부각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타코마 한인회와 공동으로 치루어진 이날 행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민속프로그램, 오락경기 및 각종운동경기가 종목별로 질서있게 진행되었고, 특히 한복을 입은 여대생들과 타코마 부인회원들의 날렵한 모습은 교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가 드너 주지사 내외를 비롯한 30여명의 이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이지역 이민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맑은 하늘에 떠있는 대형 호돌이와, 태극기 및 성조기, 오륜기가 오색 찬란한 풍선과 함께 휘날리는 광경은 이색적이었고,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해 초청된 빅토리 연예인 축구팀과 주지사 여성축구팀(코자스)과의 친선축구대회는 절정을 이루었다.(빅토리팀이 2:0으로 석패) 26일 저녁에는 타코마 템플 극장에서 연예인단의 화려한 쇼가 펼쳐졌는데 수많은 교포들은 시종일관 박수와 웃음으로 흥겨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거행된 각종경기 수상자에게는 각각 금, 은, 동메달이 수여되었고 종목별 경기전적은 다음과 같다.

1) 친선축구 : 코자스 2 : 빅토리 0

2) 400m 계주 일반 남자부 :

1등 :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2등 : 북부 시애틀 축구팀, 3등 : 타코마 백호팀

3) 일반여자부 400m 계주 :

1등 : 타코마 한인회, 2등 : 타코마 부인회, 3등 : 시애틀 한인학교

4) 한글학교 400m 남자계주 :

1등 : 시애틀 한미학교, 2등 : 시애틀 한국학교, 3등 : 타코마 한국학교

5) 한글학교 400m 여자계주 :

1등 : 시애틀 한인학교, 2등 : 시애틀 한국학교, 3등 : 타코마부인회 한글학교

6) 테니스 :

대학부1위 : 정유진, 2위 : 김지현  
일반부1위 : 이덕남, 2위 : 유병렬  
장년부1위 : 김동수, 2위 : 광종세

7) 축구 :

우승 : 타코마 백호, 준우승 : 북부시애틀, 3위 : 축우회

8) 배구 :

1위 : 시애틀 선발팀, 2위 : 타코마 선발팀

9) 탁구 :

남자개인1위 : 심형원, 2위 : 최종린, 3위 : 오윤호

여자개인1위 : 김애실, 2위 : 양경희  
복식1위 : 전호석, 김순범, 2위 : 최종린, 송춘무, 3위 : 정재석, 김애실

10) 볼링 :

남자부A조: 1위 : 장영실, 2위 : 이태휘, 3위 : 심재록

남자부 B조: 1위 : 백두현, 2위 : 유승창, 3위 : 김춘동, 김세웅

여자부1위 : 김영화, 2위 : 진재선, 3위 : 조수경

11) 줄다리기 :

1위 : 타코마, 2위 : 북부시애틀, 3위 : 웨드럴웨이

12) 골프 :

금 : 고종제, 김학남, 이용군, 은 : 박춘석, 이영덕, 신동선, 동 : 박일영, 신철수, Mrs.최기평

13) 한글백일장 :

일반부/주부 장원 : 임광순(시애틀거주, 간호원), 차상 : 김철홍(타코마거주), 차하 : 이박행(타코마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장원 : 최자영(카일로 중학교), 차상 : 김효순(스파나웨이거주)

### ●회칙 개정위원회 현행회칙 개정 최종 심의

지난 5월 23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9차 회칙 개정위원회(위원장 구범회)에서는 현행회칙 수정작업을 끝내고 최종심의를 마쳤다. 또한 기본법에 따른 업무규정, 재무규정 및 선거세칙도 각 담당자가 초안한것을 전체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심의수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그간 9차에 걸친 모임에서 한인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결로 매듭짓고 회칙개정안을 한인회장에 넘겼다. 이제 적당한 시기에 공청회를 거쳐, 이를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거친 후에야 새 회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한인회에서는 공청회와 총회 일자를 언론기관에 보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 ●Seafair Parade에서 2위차지 :

시애틀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인 Seafair Parade에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팀이 참가하여 2위에 입상했다. 지난 8월 5일 밤 8시30분부터 시작된 퍼레이드에 호돌이, 오륜기, 올림픽 프랑카드, 농악대 및 태권도의 묘한 하모니로 도로 연변에 운집한 30여만 관중을 열광시켰다. 특히 도보행진단체중 가장 많은 1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한인회팀은 최주찬 회장이하 15명의 임원이사들이 손수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하는등 모범을 보였다. 행렬의 종착지인 Kingdome에 들어가자 전광판에 네온으로 우리팀의 이름과 성적이 새겨졌고 우리같은 박수속에 행렬이 지나갔다.

금년에는 가장 많은 150개팀이 퍼레이드에 참가하였으며 19번째로 우리팀이 출전했고, King TV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날밤 가장 인기를 끈 호돌이는 행진중 운집한 관중들에게 한국캔디와 은박 올림픽 풍선을 선사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고, 오륜기와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한복입은 여대생들에게도 많은 눈길을 주었다. 또한 시종일관 흥을 돋구어준 신우회 농악대 연주와 김동석씨의 12발 상모놀이도 일품이었다.

### ●청소년 여름캠프

지난 6월 캠프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한인회 주최 금년도 청소년 캠프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의 스케줄로 캠프·케이시(윌비 아일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이색적으로 외국인 학생이 4명이나 참석했고, 스포츠와 가벼운 음악 프로그램위주로 스케줄이 진행되었는데, 강사로는 심영식 부회장, 정병국 사무총장 및 소니아 김 생활상담소장이 수고했고, 또한 U.W.한국학생회장인 성기혁군과 에스트 김양이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한편, 한인회에서는 최주찬회장이 첫날 현지에 가서 하룻밤을 함께 청소년들과 지냈고, 연이어 박태호 섭외부장, 백웅기 이사장 및 윤광남 이사도 하루씩 현지를 방문하고 청소년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번 캠프에는 총27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는 "한국인의 개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였다.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장년부는 축구팀, 청년부는 북부시애틀을 이 차지  
 지난 21일 파이프 고프에서 열린 시애틀을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장년팀은 북부팀을 시애틀을 북부팀이 차지해 축구팀은 한인회장이 기증한 7백불 상당 매형트포피를 받기도 했다. 청년팀전에서 북부팀을 결승전에서 축구팀과 열린블에 페네티키를 득점으로 연결시켜 1:0으로 영예를 얻었다. 축구회 주최로 열린 이년 대회엔 7팀의 청년팀과 5팀의 장년팀이 출전, 장년팀에서는 축구회와 백포팀이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샌포란시스코에도 한인회관 세워진 다.

상향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아리 소재 커먼웰스랜드 터이틀회사에서 에스프로 마감서류에 서명, 공포된 사회의 오랜숙원이던 회관건립이 실현된 다. 이년 에스프로 마감에는 쉐리축이 요구한 35만달러를 기증 수속비, 화재보험금 등 포함 다공백이들을 제외하면 33만2천3백달러가 요구되기도 했다.  
 ●한인회 봉사프로 이용도가 났다.  
 한인회에서 추천하는 각종 봉사프로그 램에 피인들의 이용도가 매우 낮아 한인 회 인원 몇 봉사자들을 천만시키고 있음 이 나타났다. 시애틀 한인회는 지난 2월 램부터 무료진료·무료세무상담 등으로 이곳 공인회계사 몇 의사들을 동원했었 다. 시애틀 한인회 정병국 사무총장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피민 들이 왜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런가하면 동 프로그램 에 월조를 얻어 세무프로그를 한 어떤 피민 은 그림다는 편지를 한인회에 보내오기도 했다.

●한인회 사무실이 지난 4월 23일 그린우드에서 다음타공 시애틀을우체국 앞으로 이사를 했다. 새로 이사한 한인회관의 주 소는 2733 4th Ave. S. Seattle WA 98134이며 전화번호는 중전번호 362-4500과 621-8450를 사용하고, 우편물들은 전파관이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 참가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조도식)총 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70여명의 각지역 한인회장단들 이 포인가운데 열렸다. 이번 총회에 최주 찬 회장과 정병국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각지역별 보고순서에서 최회장이 회관 건립포금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미리 준비한 패너트를 각지역 한인회장들에게 판매하여 그 자리에서 \$580,000를 모았다.

첫날인 28일에는 저녁 7시부터 추미한 국대사관에서 배부는 민찬이 였은후 88 룠롄피에 대한 보고가 였었고, 29일에는 백판에서 마이너리티 보호책에 대한 미국정책 브리핑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건정원 추미대사의 이인인사가 였었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아침 9시부터 12시 까지 신태민선생(전 경향신문사장)의 민추추의는 누가 만드나?란 제목의 강 연이 였었고, 오후에는 각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이 였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는 권익옹호분과 위원 회에 속하여 토론을 했다.

●S.A.T. 강좌 :

하위 95도를 오르내리던 더위속에서도 상어탐의 값진 선력을 기르며 20여 피 포학생이 7월 11일부터 3주간 S.A.T. 강좌 를 받았다. 한인회관에 아직 교실로 출방 이 없어서 시애틀한인장포교회에서 교실 하나를 빌려 영어와 수학을 강의했다. 남 들은 시원한 곳으로 Vacation을 갔는데 무 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장하게만 보였다. 마지막날인 7월 29일에 는 모두를 수료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속에서 장래 우리들의 희망 이 엿보이기도 했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시애틀을 워싱턴주 한인회 회관건립추진 위원회(위원장 최주찬) 제2차 총회가 8월 27일(토) 오후 7시부터 한인각에서 열렸 다. 30여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정병국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회의에서 건립추진포(워싱턴주 장포협회장)의 기 도에 이어 최주찬 회장의 건속기금 현황 보고가 였었다.

원재 총모금액은 약정금액(7만여불)를 포함하여 25만여불인바 늦어도 9월말인 까지는 약속한 금액을 모두 납부해줄것 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원천 부이사장과 이준모 이사장은 약정액 5천 불씩을 모두 납부했고, 공상인 이사도 마 지막 1천불(3천불중)를 납부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어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부위원장에게 김철자, 신희 변, 이동립씨들이, 총무간사에 한원천, 용인표씨, 재무간사에 공상인씨, 사업간 사에 백웅기, 최학기씨, 기획간사에 박태 호, 오준철씨, 상인위원회에 공판남, 이준모, 김현중씨, 그리고 서기에 정병국 사무총 장이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고액 건속기 금납부자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회관구 입에 따른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이 소위 원회에서 결정하며 구입후에는 해산하게 된다.

이어서 정병국 사무총장의 회관후보 건물 브리핑이 였었고, 건립기금을 모금 하기 위한 지역별 임원이사로 구성된 조 편성 발표가 였었다.

한편, 추석 노인대잔치 계획발표와 내 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 발표도 였었는데 세부사항은 추후에 별 표할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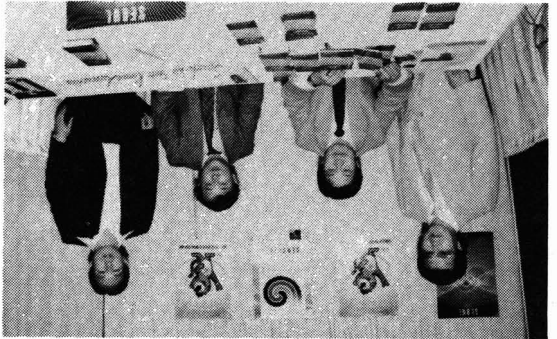


S.A.T. 강좌

●Ethnic Heritage Festival에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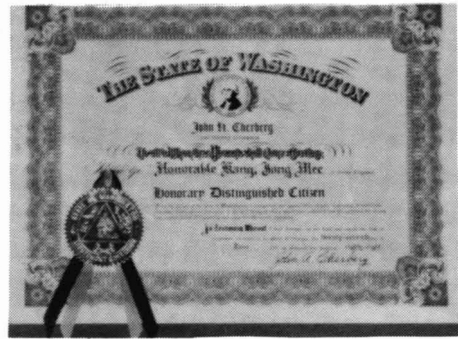
Ethnic Heritage Council에서 주최하는 축 제가 4.29일부터 3일간 Northgate Shopping Center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63개국 이 참가하여 각국 의 토산품, 음식, 춤을 소개하는 축제로써 한인회에서는 88롤롄피 홍보를 위해, 한국을 소개하는 5개의 Video Tape와 2,000 여개의 영문 판포켓을 배부함으로써 룠 롄피를 통한 한국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 행사를 위 해 최학기씨는 T.V 및 Video를 무료로 선 치하여 주셨고 이기간중 이사장 회장을 비롯해 임원전원이 빠짐없이 참석하르며 써서 룠롄피를 위한 한국민의 열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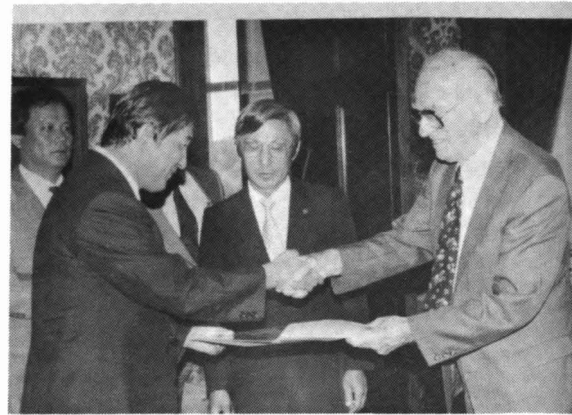




● 군수방문



● 명예 시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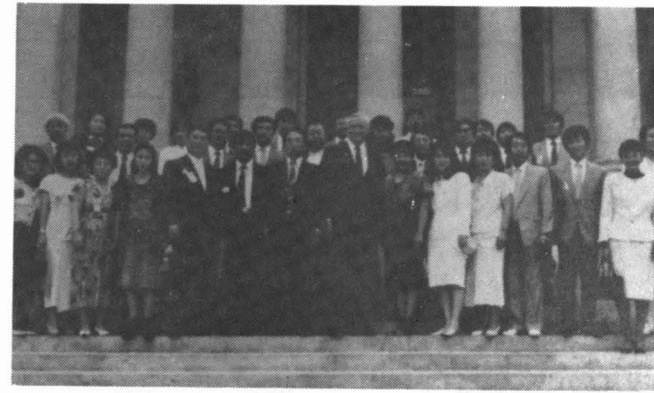
● 부지사가 명예시민권을 Victory팀에게 수여하고 있다.(6월 27일)



● 솔리스트 앙상블 초청공연 (8월6일 U.W. Meany Hall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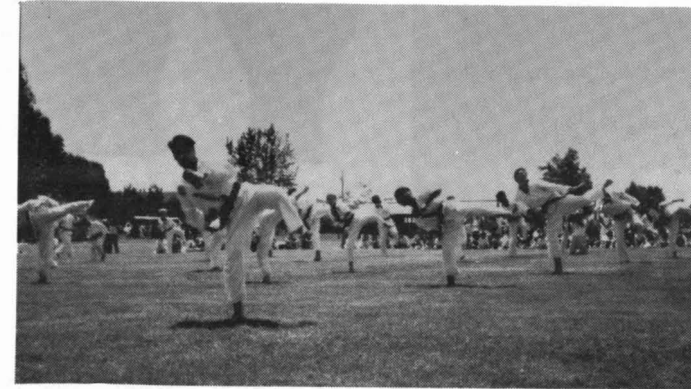
● 씨애틀 시장 Charles Royer Mayer방문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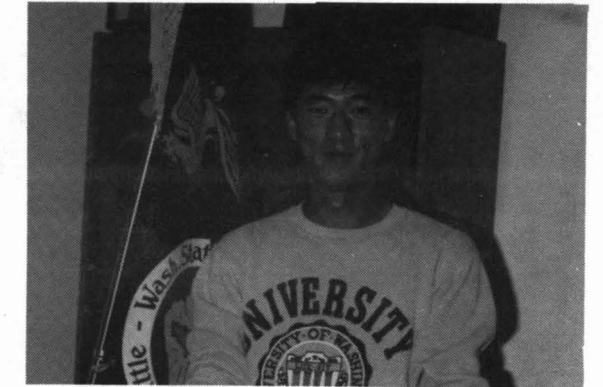
● Olympia 주청사 앞에서 주 총무국장과 빅토리아 팀과의 기념촬영(6월 27일)



● 한글백일장 일반부 입상자-김광순, 이박행 (장원) (차하)



● 이영국 태권도장 시범



● 한글 일반부 입상자-김철홍 (차상)



●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제6회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축우회팀에게 수여되었다



● Cozars팀과 빅토리아 연예인팀과의 친선 축구경기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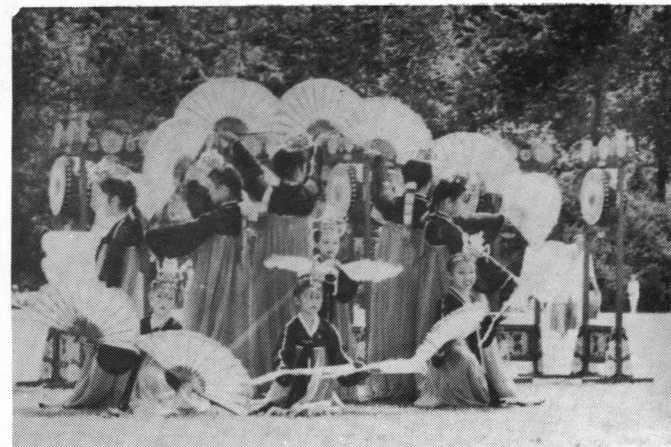
● 한국의날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타코마 축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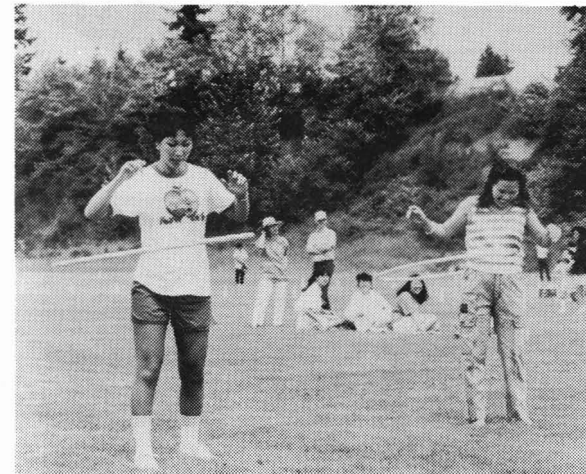
● 강강수월래



Victory 연예인단의  
교민축제의 밤공연  
타코마 템플극장에서 6월 26일밤)



● 베다니 교회 어린이 무용단의 공연모습  
한국의날에 부스 가드너 주지사  
한국 고유의 불고기 식사후 3시간 40분 관전



● 훌라후프 대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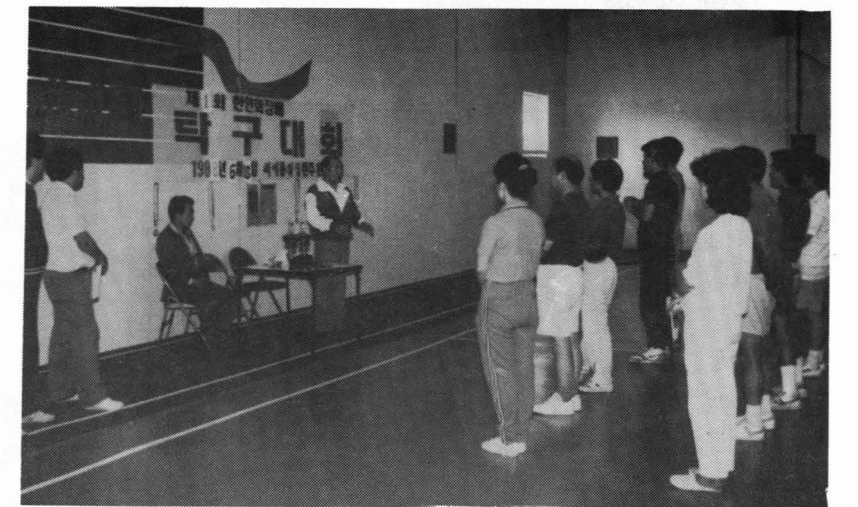
● 시애틀·타코마 도시대항 배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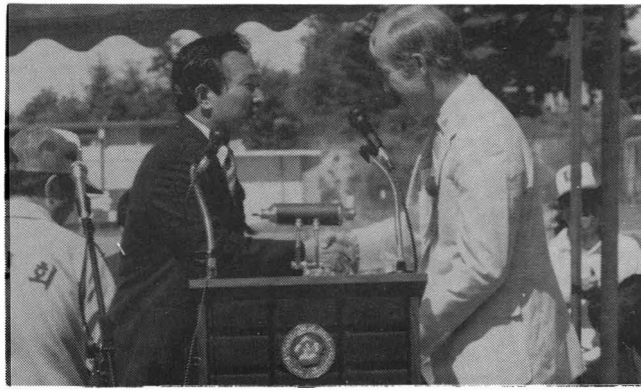
● 타코마 신우회 입장 광경



한국의날에 27개 팀이 참석하는 장면(6월 25일)



● 한국의날 탁구대회 예선 및 결선에 앞서



● 최주찬 한인회장과 주지사가 상호 인사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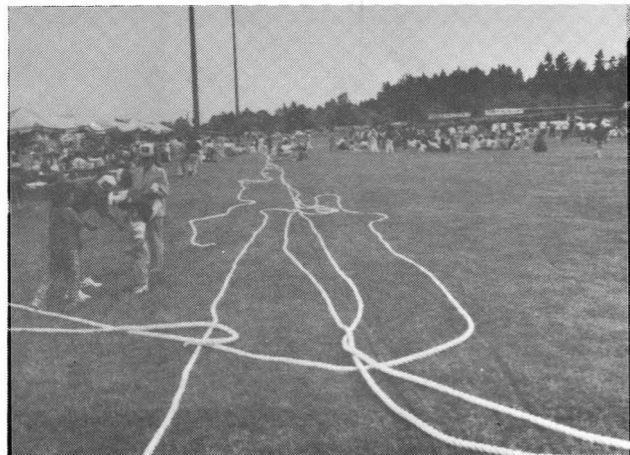


● 한국의날 Don Kim의 12상모의 묘기

귀하가 납부하신 한인회비(가구당 \$20.00)나 회관 건립비는 이지역 교민 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값있게 쓰여지며, 또한 세금공제가 됩니다. 첨부된 반송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의날 행사후 한인회에서  
기증한 줄다리기용 밧줄
- 씨애틀 한인학교 1점
- 씨애틀 한국학교 1점
- 타코마 부인회 한글학교 1점



● 줄다리기 결승장면(타코마 대북부 시애틀)



● 어린이 종합 경기중  
모래주머니 던져넣기 장면



● 한글학교 400m 계주

## 【교민사회 동정】

### ● 한글학교 교육자 간담회

시애틀 총영사관 후원으로 지난 6월 18일 해밀튼 미들스쿨에서 한글학교 교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일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모임으로 1백여명의 참석자가 시종 진지한 토론과 경청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미 문교부 장학관 선형기 씨의 강의와 질의응답, 또한 이날 서북미 한국어 교육기관 협의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회장에는 오계희씨(한글학교교장), 부회장에는 김정태씨(한국학교교장), 설자워닉(타코마부인회 한글학교교장)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 ● 시애틀 한인학교운동회 가져

시애틀 한인학교(교장 오계희)운동회가 지난 21일 디스커버리파크에서 개최 100여명의 학생 학부모가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화창한 날씨속에 개최된 이날 운동회는 릴레이, 장애물경기, 보물찾기, 줄다리기등 주로 게임위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 경기엔 학부모들이 학부모경기엔 학생들이 열띤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 ● 박동진 주미대사 시애틀방문, 서울올림픽 후원의 밤에 참석

앞으로 며칠남지 않은 올림픽을 앞두고 신임 주미대사로 발령된 박동진대사가 시애틀의 「올림픽 후원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난 달 14일 레드라이언인에서 가진 후원의 밤 행사에는 박동진 신임대사를 비롯 부지사 시애틀 타코마 두시장 존스웰만 전 지사등 많은 귀빈이 참석, 이날밤 박대사는 연설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동족의 제전에 북한이 참여할것을 재삼 촉구 또 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시애틀 등 서북미 지역의 한국과의 관계를 역설하기도...

또한 이날 행사는 전에 없었던 축제분위기였으며 LA에 있는 한국무용예술단(김동석)을 초청하여 흥겨운 춤을 선보였다.

### ● 시애틀 한국학교(한인장로교회부설) 운동회 초대형으로 거행

시애틀 한국학교(교장 김정태)운동회가 지난 5월 7일 화창한 날씨속에서 학생 및 학부모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약200여명의 학생들은 청·백팀으로 나뉘어 열띤 응원과 환호성속에서 4백미터 릴레이, 줄다리기, 씨름, 기마전, 피구등 게임을 즐겼다.

또한 어머니들도 학생들과 함께 줄다리기, 씨름, 바구니에 모래주머니 던져넣기, 발륙고 달리기, 어머니들의 널뛰기, 아빠들의 씨름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바구니 터트리기에서는 바구니가 터지면서 각종 캔디가 쏟아져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올해로 세번째 맞는 동교 운동회에는 최주찬 한인회장등이 참석 축사를 했으며 이 운동회는 청팀의 승리로 오후5시경 막을 내리기도 했다.

### ● 제임스리 성화봉송주자로 선정돼

축구협회장 제임스리(한인회 이사)씨가 올림픽의 성화주자로 선발되었다. 성화봉송 주자는 모두 2만여명으로 미주지역에선 80명이 선발 이지역에선 이씨 한사람뿐이다. 이씨는 오는 9월 14일 파천종합청사로부터 북쪽으로 1킬로미터 구간을 보조주자 10명과 함께 메인주자로 성화를 봉송하게 된다.

### ● 대학가요제 성황리에 대상엔 「그리고 또」 선정

이지방 젊은이들의 큰 잔치인 대학가요제가 30일 개최되어 이중석·이윤경씨로 구성된 듀엣 「그리고 또」가 창작곡인 「자화상」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당일 7시30분 U.W. 학생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가요제에는 4백여명의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시종 즐겁게 진행됐다.

또한 이날 출전한 팀들은 한팀을 제외하곤 모두 창작곡을 불러 대학가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을 심사원으로부터 들을수가 있기도 했다.

●교회학교연합회 회장에 황동규씨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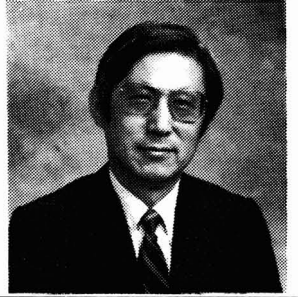
워싱턴주 교회학교 연합회는 지난 8·9일 양일간 춘계교사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정기총회를 개최 신입회장에 황동규씨를 선출했다. 동연합회는 밴쿠버 침례교회 김기서 목사와 황동규씨의 리더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6월말 하기수련회를 마련키로 결정을 하기도...

●KOAM-TV(대표 고종제)가 809 S. 336th St. Federalway로 확장이전하였다. 85년 개국 이래 타코마지역 CH 29·35, 시애틀지역 CH 14·18을 통해 주 16시간씩 방영하고 있는 KOAM-TV는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봉사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5일자 시애틀 P.I.신문은 한국인의 이민에 따른 자영 비즈니스 관계를 전면 할애하여 실는등 크게 보도하였다. 당 신문 비즈니스 페이지를 양면이나 할애하여 한국인의 이민에 따른 정착과정 특히 소형 비즈니스의 많은 부문을 갖고 정착해 간다는 기사 및 사진을 기재하고 또한 이곳에 정착된 각종 인종간의 소형 비즈니스 점유율까지 나타내고 있다.



## 내가 걸어온 한인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978년 12월 20일 나와 가족이 시택공항에 오후4시20분 도착하니 미8군에서 같이 근무하던 예비역 육군 소령 Eugene Pittson부부와 가족이 우리 식구를 따뜻이 맞이하였다.

그때 Pittson 소령은 첫인사가 "Tae Ho I am very sorry"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어제만 해도 이곳 시애틀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어 나의 권유로 이민오는 당신과 당신가족에게 첫인상을 좋지 않게 느낄까해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나와 가족이 이곳으로 이민올때 한국 사람으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큰딸아이 배화고녀 동창 부모님되시는 구만희씨 부부께서 도착한 다음날 Pittson소령집으로 찾아와 첫한국 교포가정을 알게되였다. 우리식구는 미국인 친구가 얻어온 아파트로 옮기고 구만희씨대에서 그로서리도 보아주시고 또 임시로 필요한것을 도와주시어 한국에서 배로 보낸 이사짐이 올때까지 학교뒤 방3개인 아파트에서 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였다.

다음해봄 왜그리 비가 계속오는지 거기다 까마귀가 자주 짊어대는지... 계획 없는 생활에 미국에 온것이 후회도 되였지만 내가 우겨서 왔으니 말도 못하고 집사람은 되돌아 가자고 했으며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미국에온 사내놈은 학교에 가기가 싫다는것이였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이들이 Chinese라고 놀린다는 것이였다. 또한 나는 미국인이 약속한 계획이 뜻대로 안되어 매일같이 신문을 보고 이력서를 수도없이 보냈으나 거의가 회답은 당신에 해당되는 직책이 없다던가 Over Qualify가 된다는 회신이였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동안 큰딸아이의 친구 부모되시는 구만희씨(현재 시애틀 한인천주교회 사목회장)의 안내로 한인성당에 주일마다 나가면서 차츰차츰 교민을 사귀게 되였다.

나는 다행히 4월 25일 GTE 회사에 취직이 되어 생전 해보거나 생각도 못한 전화가설 및 수리공으로 주6일 아니면 일요일도 Over time할때가 많았다. 어렵고 모르는것이 많고 비를 맞으며 전주에 매달려서 2-3시간씩 있기는 보통이였다. 그러나 교우분들의 격려와 몇십년만에 만난 고향학교후배(문유기)와 학교동창(임광희)등을 만나면서 한인회 조성욱, 강동언 전회장을 알게되였으며 3·1절, 8·15등 한인회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한사람 두사람씩 사귀게 되였다.

1983년에 신호범 회장이 엄명보 전회장으로 부터 인수받아 어려운 시기를 치른 가운데 나에게 재무를 맡아 달라고 그당시 조성욱 총무와 신호범회장께서 수차례 걸쳐 요청이와서 몇번 사양했으나 결국 맡게되어 직장외에 사회봉사라는 어렵고 무거운 일을 시작한것이다. 나에게 가장 적성이 안맞고 계산에 둔한 재무를 맡고 나서는 보통 밤12시까지 영수증 발급과 재무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특히 그해 4월23일 한국의밤 행사 관계로 티켓판매 Donation 입금 정리등으로 장부가 복잡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인회 재무 맡게 된것을 수없이 후회하고 금년만 끝내고 일체 한인회에서 멀리 하겠다고 결심했으며 식구와도 약속했다.

그런데 84년에 오계희, 이현진 정부회장이 재무를 계속해서 맡아달라고 수차례 청해왔으나 사양했더니 그러면 무엇이던 원하는 임원을 하라는 권유에 결국 섭의를 맡게되였다.

그로부터 한해동안 재무보다는 정신적으로 부담이 적은 섭외부장은 큰 어려움 없이 오계희 회장을 도와 한해 봉사했으나 한인회 봉사는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했다.

그런데 오계희 84년 회장으로 부터 이어받은 오준걸 85년 회장은 나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오계희 신호범선배 회장들에 추천을 받았는지 나에게 부회



# 오리엔탈 바베큐센터

Oriental B.B.Q. Center  
★ Restaurant & Cocktail Lounge ★

## 자랑스런 한국식당

아늑한 분위기 · 푸짐한 밑반찬  
한식 및 중화요리일체 · 불갈비  
냉면 · 전골전문 · BBQ 일체

- 회의실 및 연회석 완비
- 넓은 자가 무료주차장
- 가족모임, 친목회식, 회갑연, 결혼 및 약혼 피로연, 기관접대연 환영
- 야외 도시락 주문배수

# 771-3700

3828 196TH ST SW LYNNWOOD

RESTAURANT & COCKTAILS

OPEN 7 DAYS A WEEK 11:00~2:00 AM

대표 이종길

단체예약 : MRS. LEE

장으로 도아줄것을 계속 청해와 마음이 약한 난지라 결심이 변심으로 바뀌어 연 3년째 한인회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또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신호범·오계희 선배회장에 이어 오준걸 회장 역시 매사에 침착하여 부회장으로서 열심히 회장을 도와 한해 봉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해 한인회 사무실을 두번이나 옮겨야 했다. 125st Lake City에 있는 학교에서 11051 34th Ave. N.E. Nathan High School 2층으로 85년 3월에 이사했으며 6월에는 Green Wood 125 St.에 있는 학교로 다시 이사를 하였다. Lake City에서 Green Wood로 이사를 할때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사무용구를 옮기다 엘리베이터가 잠기어 20여분동안 갇히어 혼이난 일도 있었다. 때로는 부회장인 내가 회장이나 임원들에 비하여 성의가 없는 이사들에게 바른 말을 하여 미움을 산 기억도 있다. 그럴 때마다 신호범, 조성욱 전회장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신호범, 오계희 선배회장의 고충이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봉사하는것을 보고 고개숙이며 선배 회장들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었으며 교민회 봉사하는 정성을 볼때 나의 봉사는 부끄러울 정도였다. 한인회장을 두번이나 봉사한 신호범회장 한글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한인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낸 오계희회장, 또 이사장 이사 임원을 지낸 오준걸 회장들에게 비해볼때 내가 한인회 봉사하는것은 별로 불평할게 없다고 판단하여 오준걸 회장을 도와 한해를 잘 끝내고 한인회 봉사는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86년도 회장은 내가 하는것으로 교포사회에 알려져, 딴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한인회의 연속성이나 한인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된다고 오준걸, 신호범 선배 회장들이 권했으며 또 아무도 등록마감 30분전까지 입후보한 사람이 없으므로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86년도 한인회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나는 세선배 회장들의 봉사정신에 힘입어 그분들의 뜻과 나의 뜻을 종합하여 발전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결심, 김영남총무

를 비롯한 임원을 잘구성했다.

그리고 이사진도 오준걸 자동 이사를 비롯, 한만섭, 김홍식등 여러해동안 한인회에 협조한 이사분들과 민학수, 최경수, 신응호등 신입이사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최경수이사장, 민학수 총무이사를 선임하는등 모든일이 순조로히 잘 진행이 되었다.

그리하여 86년 1월 16일 이사임원합동시무식에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통과 발표했으며 어느해보다 잘 진행되었다.

85년 11월 총회에서 교포들께 약속한 대로 1000세대 한인회비 내기, 한인회보 매월 발간 그리고 한인주소록 발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갔으며, 매년 4월이나 5월에 치루던 한국의날 행사를 그해는 8월 15일 광복절에 하기로 계획을 세워 순조로히 진행하였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특별한 뜻도 없이 4-5월에 왜하느냐"는 많은 교민들의 뜻을 참작, 광복절로 정했으며 또 하나는 "4월 18-20일사이 전두환 대통령이 유럽 순방후 귀국길에 이곳 시애틀에 들러 쉬고 가니 가능하면 4월에는 큰 행사를 없애고 총영사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총영사관을 도와 전대통령 환영준비에 협조하기 위함이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일부 교포들이 전대통령 방문시 반대 데모를 했으나 조국을 위하고 사랑하는 넓은 뜻에서 국가원수를 따뜻이 영접하는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환영했으며 따뜻이 환송까지 한것은 지금도 잘한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잊을수 없는 큰 일중에 하나는 업도승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부당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6월 13일 KIRO-TV 방송국앞에서 데모를 한 사실이었다.

나는 회사일로 처음부터 참석치 못한다고 소위 가칭 업도승박사 후원회 모임에서 이야기 했으며 또한 내 개인 생각으로는 데모를하는것이 우리의 힘을 과시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리할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 KIRO-TV가공식 사과를 하거나 업도승산부인과 박사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안되고

2. 미국 TV나 신문에 조국에서 학생들이 헌법개정이나현정부에 반대하는 데모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이곳에 사는 교포까지 데모만 한다면 데모하기 좋아하는 국민이라는 평을 들을까 염려가 되어서 였다.

그래서 나는 이사 임원을 임시소집 개인의 뜻을 듣고 그뜻에 따라 한인회의 이름보다 개인의 자격으로 데모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진행은 후원회에서 주관했다. 나는 78년 12월 20일 이곳에 이민와서 79년 4월부터 GTE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누구보다 업도승박사의 억울함을 알수있다. 하지만 결과가 더욱 손해난다면 안한것만도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기회에 확실히 해둘것은 당시 한인회장인 나나 그누구도 업도승 박사에게 불리하도록 작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민생활에 당해야하는 숙명적인 수난으로 알고 나는 아무에게도 원망하고싶지않고 또 아무도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바란다. 단, 하필이면 왜 내가 한인회장 할때 이런 어려운 사건이 났으며 또 전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갔는지, 모두 내자신의 운명으로 돌리고 싶다.

86년 10월에는 나를 도와 같이 봉사하던 최주찬 윤광남 두 부회장이 경합이 되어 당시 현직 회장이던 내가 당한 당시의 고충은 컸다. 자신의 양심보다 주위 분위기 또는 종교를 이슈로 동족끼리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다시 없기 바란다. 당시 그로 인하여 내가 교민사회의 존경하는 어른들이나 선배들께 불손히 한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리는 바이다. 윤광남 최주찬 당시 두보회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87년에 이어 88년 현재 훌륭히 또 서로 잘 협조하며 한인회를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경합당시에는 어떤 잡음이 있었던간에 87년도에는 윤광남회장이 88년 현재는 최주찬 회장이 열심히 또 회관을 꼭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며 나보다 더 훌륭히 한인회를 발전시키는 두 후배회장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올해는 최주찬 회장의 부탁으로 섭외를 맡아 내편에는 최선을

다해 돕고 있으며 6월 25일 한국의날 행사 및 8월 5일 씨퍼레이드를 성대히 치루어 몇년동안 참석치 않던 주지사부부및 총무처 장관 가족등 많은 주정부 고위층이 한국의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씨퍼레이드로 가장 많은 인원동원 및 88서울 올림픽을 상징하는 호돌이등 농악과 이영국 도장의 주로 외국인 문학생들이 보인 태권도시범등으로 당당 총합 2위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모두 나는 한임원으로서 그들에서 도왔으나 나와같이 일할하던 부회장이 현재 회장으로 수고하는데 만족하며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민생활 9년 7개월동안 가정적으로는 충실치 못하여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바 없으나 83년에 신호범, 조성욱 두 선배회장의 권유로 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민의 선배 한인회의 선배인 여러교민들로부터 많은것을 배웠으며 많이도와준데 다시 감사 드리고 싶다.

아울러 덕이 부족하고 경솔한 탓으로 때로는 선배 여러분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불경스러운 과오를 범했다면 모두 백배사과 드리는 바이다. 많은 어려움가운데 꾸준히 뒤에서 도와준 집사람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자란 외동아들(준영)과 두딸(현숙, 혜경)에게 다시 한번 보람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내가 9년간 몸담은 GTE회사에서도 사장을 비롯 고위 간부들이 내가 한인회에 봉사하는데 격려와 2차에 걸쳐 한인회회장 이사진과 총영사를 초청 회사 소개 해주었으며 86, 87에 이어 88년에도 GTE에서 사회자원봉사 공로상및 상금을 시사해 준데 자부심과 함께 영광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나에게 행동으로 많은것을 느끼고 모범이 되었으며 힘이 되어준 신호범, 오준걸, 한만섭, 이현기 여러선배들께, 그리고 86년 나와같이 수고한 김영남 총무와 임경빈 부녀, 멀린스 재무등 여러 임원들과 최경수 이사장과 민학수 총무 이사및 여러 이사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이밖에 많은분들께 감사하며 86년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도와주신 박영희, 최태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민 여

려분 가정마다 더욱 다복하시고 심신 건전한 가정이 되시어 우리 한인회의 진취적인 발전에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1988년 8월 20일

박태호

1986년 회장 및 현 섭외부장



## 미 대통령 어떻게 뽑나

미국대통령은 크게 볼때 지명절차와 일반투표의 두과정을 거쳐 뽑힌다. 공화.민주의 양당제도가 정착한 미국시스템에서 대통령후보의 지명절차는 각주마다 약간 방식이 다른 예비선거(Primary)또는 당원들의 비공식회의(Caucus)를 통해 각당이 여러 후보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며,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들이 양당의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서 후보로 지명된다.

올해에는 오는 2월8일의 아이오아 코커스 및 2월16일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필두로 지명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개주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리는 3월8일의 '슈퍼투즈데이'를 거쳐, 4월19일의 뉴욕프라이머리, 그리고 6월7일의 캘리포니아등 4개주 프라이머리를 끝으로 예비선거가 일단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3월15일의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시점 되면 프라이머리.코커스 전체표의 절반 정도가 유효를 드러내어 양당출마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가 부각되기

쉬우며, 여전히 복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뉴욕,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뉴저지등 후반부에 비선거결과가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35개주의 프라이머리와 15주의 코커스를 거치면 대개 양당의 선두주자가 결정되어 각각 여론조사 전당대회에서 정식 지명작업이 이루어진다.

축제분위기속에서 단합을 다지는 한여름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각당은 나머지 여름을 선거전략계획 등으로 보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노동절이후 초가을 부터 시작된다. 선거유세는 미국사회의 여러 계층과 각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민주당이 정당동력과 지지면에서 공화당을 앞지르는 반면 실제 투표참여율, 자금동원, 언론 지지등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년의 상황이다.

11월의 둘째화요일(올해는 8일)에 진행되는 일반선거는 미국이 간선제인 까닭에 유권자들이 각당에 의해 제시된 주별선거인에 투

표하며 여기서 선출된 5백38명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12월 두번째 수요일 다음의 첫월요일에 각주수도에 집합, 자기당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표를 던지게 된다.

따라서 대개 일반투표가 거행된 날 자정쯤 되면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일반투표에서는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표가 적어 패권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실제 미역사상 일반투표의 다수득표자가 떨어진 경우가 1824, 1876, 1888년 세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각주의 승리후보가 선거인단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전승'(Winner Take all)원칙 때문이며, 이의 불합리성을 지적, 선거인단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왔다. 아예 직선제로 바꾸는가 아니면 제도자체는 살리되 일반 선거투표율에 따라 선거인단표를 분배하자는 '비례적 방안'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여러 반대이유로 실현전망이 어렵다.

## 崔慶祿의 골프칼럼

### 골프의 기원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골프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에서 시작된것쯤은 다 알고 있을법하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과 같은 골프가 정착되기전의 기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70년대초 영국대사로 재임했던 시절 필자는 런던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들과 함께 스코틀랜드정부의 초청으로 정기적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코스에 여행을 다녀오곤 했다.

물론 맹목적 여행이나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곳에서 명사들과 골프를 쳐보면서 교분을 두텁게 했던 외교활동의 연장이었던 셈이다.

현대골프의 각종 룰을 정하는 교황청적인 R&A(The Royal and Ancient)본부가 있는 이곳은 처음에는 양들의 방목장이었고 오늘날의 골프라는 경기는 양치는 목동들의 장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상류층의 전유물과도 같은 이 골프가 최하계층에 속하는 목동들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3백여년전 양치는 일의에는 별로 일거리가 없었던 목동들은 막대기로 돌맹이를 때려 누가 멀리 보내는가 내기를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가 가장 멀리 쳐보내는가에 관심을 집중시켜 무료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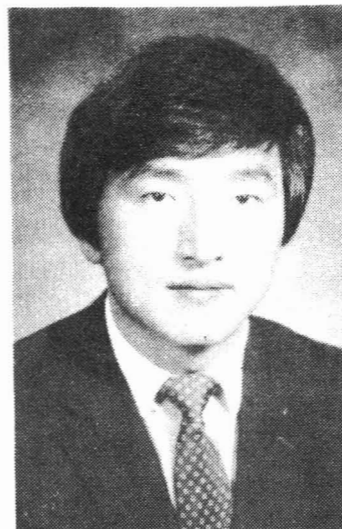
달렸지만 그것도 시들해지자 차츰 목표물을 정해두고 몇번만에 이 지점까지 돌을 쳐서 보내는가로 승자를 가리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골프의 시초가 된 것이다.

지금도 당시 목동들이 사용했던 막대기와 돌맹이들은 올드코스의 역사를 말해주듯 박물관에 보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안양골프장에 일부가 전시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잔디정리작업과 코스내에 산재해있는 해저드의 주변정리로 다소 황량한 모습을 가졌으나 필자가 방문했을때만해도 대낮에 페어웨이에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잿빛 늑대들이 역시 자연 그대로의 코스임을 실감케했다.



Alley CHEVROLET



363-6110  
483-3410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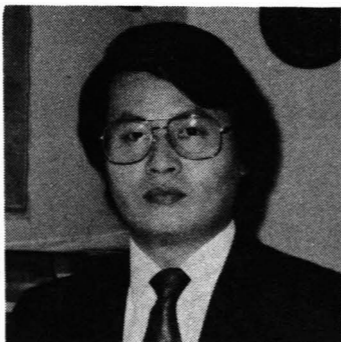
Alley Chevrolet 의 No. 1 Salesman 데이비드 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GM 의 Chevrolet 차종과 Volkswagen 차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려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종류의 차종과 잘 엄선된 중고차들도 취급합니다. 자동차에 관한 모든 문의는 데이비드 심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복된 미국생활을 안전한 자동차와 함께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환 배상-

11550 Lake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신성근

K's Business System



..... 1 ..... 2 ..... 3 ..... 4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자신의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여 수작업중심의 농경사회로부터 기계력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삶의 편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새로운것을 추구함으로써 오늘날 컴퓨터를 도구로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보화시대로 이끌어 왔다.

정보화시대라 함은 정보(情報)가 에너지나 여타의 물질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고 있음을 상기 시킨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물질이나 에너지의 편제로 인하여 부의 편중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누가 적시적절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차이로써 빈부의 수준이 결정되며 이로인한 빈부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종류의 정보를 누구나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접촉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 질때 정보의 이용기회는 균등하게 제공 될 것이다. 즉, 정보이용의 필요가 있을때는 언제 누구든지 정확한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발전을 거듭하는 한인교포 사회에서도, 첨단정보사회의 일원으로서 어깨를 같이 하기위하여 부모나 자녀할것없이 정보시대의 꽃인 컴퓨터를 이해하고 그 이용방법을 상식화함으로써 누구나 컴퓨터를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및 홍보활동이 절실히 요청되며 그 기술발전과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계속적인 보완과 재교육이 필요한점 등을 생각할 때 컴퓨터 보급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컴퓨터교육은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의 걸작품으로서 정보화시대를 앞당긴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이성적면에서 때에 따라 월등하다. 인간의 일부기능이 응용 개발된 컴퓨터는 크기면에서 점차 소형화되는 반면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면에서는 나날이 대형화되고 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사칙연산과 복잡한계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해치울 뿐 아니라 그 외의 기능을 열거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하여 보관하고, 비교하며, 검색하고, 분류하고, 조회하고, 판단하며,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 반복처리하고, 기록하고, 인쇄하므로 인간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불만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자신이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기계들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잘 조화시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수가 있는데, 컴퓨터로 처리하는 대상도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않고 언어, 음악, 미술, 디자인, 시뮬레이션, 상담, 학습등 이미 개인용 컴퓨터의 영역내에도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리하는 방법도 나날이 세련되어 가고 있다. 컴퓨터는 기계부분인 하드웨어(hardware)와 그 기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령의 집합으로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software)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와 그것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일치 되었을때 비로소 컴퓨터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도체기술 혁신으로 하드웨어는 성능면에서 좋아지고 규면에서 점차 작아지며 가격도 하락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그램 개발의 장시간 소요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이 적지않다.

..... 1 ..... 2 ..... 3 ..... 4

..... 1 ..... 2 ..... 3 ..... 4

그러면 컴퓨터는 외부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받아서 이해하고 처리 할까? 컴퓨터는 자연계의 모든현상 즉, 빛이나 소리, 열과 압력등 여러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키보드나 마우스(Mouse) 또는 바코드 리더(Bar code reader)나 모니터 스크린의 접촉(touch), 그외에도 사진기로 사물을 촬영하여 입력하거나 사람의 음성과 뇌파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이들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신호를 컴퓨터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이나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때 컴퓨터는 "1" 과 "0" 만을 사용하는 이진법을 이용하여 종국적으로 기계어의 가장 근본적인 코드로 변환시켜 주고 기계어로 처리된 결과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도표 혹은 그림으로 변환시켜 출력하여 준다.

근래에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가정및 교육용과 상업용으로 편의상 나누어 본다. 가정에서 구입한 퍼스날 컴퓨터의 대표적 용도로 자녀들의 학습과 가계의 지출관리, 연말세금정산, 홈뱅킹(Home banking),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서식과 문서의 작성 그리고 오락을 위한 게임이 대부분이지만 보다 폭넓게 활용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상업용으로 컴퓨터의 이용분야도 많다. 수입과 지출관리(Accounts Receivable/ Payable)는 물론 급여관리(Payroll), 고객관리(Customer Management), 재고관리(Inventory Control), 판매관리(Sales Order Processing),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등 경영관리에 종합적으로 이용된다. 부수적으로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문서와 서식을 작성하고 텍스트머지(Text Merge)도 할 수 있다.

장래의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의 개발, 아울러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추구로 문제해결을 위한 고장진단이나 법률자문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상담을 폭넓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인교포 사회에서도 컴퓨터이용의 보편화 또는 대중화를 위하여 첫째, 매스컴이 이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활용방안과 미래의 전망등을 감지하여 교포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꾸준히 계몽해야 한다. 둘째, 생활속의 과학화를 실현키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요청된다. 즉, 매사에 생각하고, 기록하고, 활용하며, 새로운것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현재 처한 상황에서 생활여건을 능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수학과 논리적사고에 재능이 있는 한인교포 자녀들에게 컴퓨터 조기 교육을 시키므로 '컴퓨터 마인드(computer mind)'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이들이 자란후 컴퓨터의 대중화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자신의 талан트를 십분 발휘하여 정보화사회의 진일보된 역군으로서 교포사회의 지위를 향상 시키도록 한다.

..... 1 ..... 2 ..... 3 ..... 4

<p style="text-align: center;"><i>Grace</i> <b>Construction Co.</b> General Contractors</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b>Chang-Do Yoo</b> 유창도</p> <p>7705 234th St. S.W. Edmonds, WA 98020</p> <p>Digital Page: 997-1131 Res: 775-0840</p>	<p style="text-align: center;"><b>전기제품 일철수리</b></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24 HOUR SERVICE MARK W. LEE <b>771-5728</b> 이우호</p> <p style="text-align: center;"><b>LEE'S SERVICE CENTER</b></p> <p style="text-align: center;">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b>PAGER: 991-6944 *** □□□-□□□□ ***</b></p>
--	---

## ■ 당뇨병이란?



김순희(김순희내과의원장)

### \*「당뇨병(Diabetes Mellitus)이란?」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당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란 인식이 되어 있으나, 의학적인 견지에서서는 혈액내의 당분이 정상치보다 높아지는것을 당뇨병이라고 할수 있겠다. 왜냐하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게되며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때 일시적으로 소변에서 당을 배출해 낼수 있기때문이다.

### \*당뇨병의 원인?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췌장(Pancreas)에서 분비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Insulin)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안되거나 혹은 필요량보다 적은 양만이 생성되는 것이 이유가 된다.

○그외에도 갑상선, 부신등의 호르몬 분비가 이상 혹은 콜티손(Glucocorticoid) 피임약 복용에서 몰수도 있게된다.

○인슐린 등 호르몬의 분비는 정상이나 우리몸의 각조직 세포에서 호르몬이 정상대로 작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비대증(Obesity)이다.

###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오는 원인

#### 1. 유전적 요인.

당뇨병이 유전이나 아니냐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의학계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제는 명확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그렇다고 당뇨병을 가진 부모의 모든 자녀가 당뇨병자가 되는것은 아니며 유전자의 전수법칙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태어날수도 있고 당뇨병 유전자는 가지나 당뇨병은 가지지 않을수도, 또 완전히 당뇨병 유전인자를 갖지 않고 태어날수도 있다.

## 2. 췌장염

어떤 원인이든지 췌장에 염증을 잘 일으키어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되면 당뇨병이 오게되며 흔히 있는 예로써 술을 파음 혹은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췌장염 환자에서 결국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다.

## 3. 진단방법

그 외에도 췌장에 이상을 동반하게 되는 유전적 질환에서 당뇨병이 있거나 쿠소수에 불과하다.

### \*진단방법

1. 12시간의 공복(아무것도 먹지 않고 12시간후)시 혈당량이 140mg(실혈실에 따라서 110-140mg의 차이가 있다)이거나 그 이상일때에 당뇨병이란 진단이 내려진다.

2. 75gr의 당분을(glucola)섭취시킨 2시간 후의 혈당분이 200mg이거나 그 이상일때 당뇨병이란 진단이 내려진다.

### \*당뇨병의 증세

초기에는 거의 증세를 느끼지 못하게 되나 피곤이 증가하며 소변을 자주보게 되고, 목이 마르는 증세를 느끼고, 어지럼증, 소화불량등이 오게 되다가 이유없이 방광염, 질염, 피부염등이 자주 오며 감기등 전염병을 자주 앓게 된다. 병세가 심해짐에 따라서 시력감퇴, 백내장, 손발의 마비 혹은 저림증, 구토, 설사, 출도, 피부의 피사등이 오게되며 각기판의 혈관들이 두꺼워지고 약해짐에 따라서 신우염, 신부전증, 심경색증, 심장마비등도 오게된다. 아주 심한 복합증으로는 체내의 산도(acid)가 올라가며 혈액내의 기름성분이 올라가서 의식불명에 까지 이르기도 된다.

### \*당뇨병의 치료

근본적으로 식이요법과 인슐린 주사 치료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의사로서는 권한다. 먹는약으로 당뇨병을 조절하는 방법은 될수 있으면 피하려는 의사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알약으로 혈당은 조절되며 그로 인한 여러증세(피곤, 조갈, 어지럼증, 답이 결리는 증상등)는 호전되어지나 당뇨병 자체로 인하여 오는 혈관의 벽의 변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빨리 악화를 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시력저하, 콩팥의 기능저하가 더 빨리 몰수 있게되며 가장 무서운 것으로는 심경색증, 심장마비등이 예고없이 몰수 있게된다.

### (1)식이요법

○당뇨병 환자중 공복시의 혈당이 141-200mg% 사이로 나오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방법이며 혈당량에 따라서 설탕, 꿀, 잼, 과자등만을 식사에서 제거하게 할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녹말성분을 피하게 하며 쌀, 잡쌀, 밀가루, 파일까지도 제약을 받을수도 있게된다.

○특히 몸무게가 정상치보다 무거운분들은 우선적으로 당분의 제약과 동시에 기름의 섭취에 많은 제약을 두어서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calori)을 줄여서 몸무게를 조정케 한다.

○당뇨병이라 하여 무조건 고기종류를 섭취하면 안되는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기름기와 당분을 피하여야 하므로 하루 필요 열량을 흰자질에서 섭취하여야 하며 가장 흰자질이 많은것이 고기종류이기 때문이다. 단지 기름을 완전히 빼도록 노력하여 살고기만을 섭취하기를 권한다. 동물성 흰자질(육류)보다는 식물성 흰자질(두부, 콩등)을 취할것을 권한다.

○어떤분들은 당뇨병은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과당이 혈당을 높이는것은 사실이나 적은 소량은 허용하고 있다. 하루 일반적으로 사과반알, 오렌지반알, 바나나반개, 한쪽의 수박 혹은 참외등에서 한 종류를 세번 먹는것은 무난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포도등 아주 과당이

높은것은 삼가하는것이 좋다.

○생선종류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좋은 흰자질의 음식에 속하며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것은 사실이나 만약 기름에 튀기거나 부쳐서 먹으면 기름기가 많이 섭취되어서 좋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워서, 또는 삶아서 먹는것이 좋다. 교감(Shell)종류에 속한 게, 가제, 새우, 조개등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체내의 기름을 몰라가게 하는 당뇨병에는 좋지않다.

### (2)약물치료

#### A) Insulin(인슐린)주사

공복시의 혈당이 200mg % 이상이면,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되신분께 해당되는 치료방법으로 담당 의사와 긴밀한 상담관계를 유지하며 주사의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주사를 놓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주사를 맞을때 몰수있는 복합증과 거기에 대한 응급치료등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B) 정제(알약)

공복시에 혈당량이 200mg % 이상인 사람중에 나이가 60세 이상인분, 주사를 맞을수 없는분, 음식조절에 실패한분등게 해당이 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가 안되어서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되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치료 방법이다. 당뇨병약이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인슐린을 배출하게 하는 약이므로 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의 인슐린을 배출할수 없을때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췌장세포가 연약하나 기능은 발휘할수 있을때 정제를 들면 효과가 있으며 또 매일 주사를 맞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므로 이 방법을 주로 택하게 된다.

\*끝으로 당뇨병이라도 철저히 지속적인 치료로 조절하면 거의 모든 환자가 정상적 생활을 하며 장수할수 있으므로 당뇨병이란 진단으로 낙심하지 말고 의사와 의논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계속적인 당뇨 조절을 권면한다. ★

「바람이여」

시인  
김희자(시애틀거주)

어디서 오나 바람  
 눈 비벼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것이  
 두손 공손히 건네어도  
 잡히지 않는것이  
 휘휘 길을 가네  
 끝머리도 아득한 길  
 햇살 길게 드리눕는 벌판에도  
 첩첩산중 고목 가지위에도  
 네 머물던 자취 적막으로 남아  
 시린 손짓으로 닦아섰다가  
 채울길 없는 빈가슴 모로 안고  
 쓸쓸히 네가 다시 일어설때  
 바람아  
 그대 한번은 그래도 좋을  
 불망을 깨우거라  
 세월조차 무심히 긴 잠들어  
 타던 그리움 하얗게 사위어 있다해도  
 끝내 다스려지지 않아 서러운 불망하나  
 미진의 목마름, 그 굴레로  
 찢기어 황폐한 마음 벌위에  
 회생의 불 지펴  
 꼭꼭 물어 안고 떠나길  
 아. 그러나  
 부서지며  
 부서지며  
 휘휘 허공을 돌아  
 어디로 가나 바람.



# 꿈 마차 황금 마차



박숙희



뽕그랑! 맑은 햇살이 누리에 가득합니다.  
 이제 마약 아침 식사를 끝낸 해님이 빛뿌리개  
 에 햇살을 가득 담아 뿌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아이, 어썸 이렇게도 날씨가 좋을까.”  
 “이사하긴 안성마춤이군.”  
 웅이네 식구들은 부지런히 이삿짐을 꾸렸습  
 니다.

그렇지만 웅이의 증조할머니는 이불을 폭  
 둘러 쓴 채 누워만 계셨습니다. 사실은, 벌써  
 며칠째 이사 때문에 화가 나 이려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여  
 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도 4 층아파트 꼭대기  
 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 봐  
 도 안 될 일입니다.

노인정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고층아파트는  
 모두 하늘에 띄워 놓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서 흠내음도 올라오지 않고, 꽃이 피  
 어도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  
 말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꼭,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내려올 귀양살이를 떠나는 것만 같  
 아 할머니는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구나 마당 두어평 밭에 일구어 놓은 상치,  
 쑥갓, 고추, 파들이 한창 사랑스러운데 그것  
 들을 매만지고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사는 할  
 머니의 마음을 몰라 주는 식구들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항상 할머니의  
 웃음이 되어 주었던 웅이 녀석도 먼 도시로 전  
 근을 가는 제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으니, 할머  
 니에겐 이제 기쁜 일이라곤 조금도 생길 것 같  
 지 않습니다.

웅이네를 보내기 위해 집을 팔고 값싼 아파  
 트를 사게 된 사정을 생각하면 떼를 쓸 수도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필이면 아파트라니, 생  
 각할수록 무능한 아들이 괴씸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큰 짐차가 와터  
 요.”

귀여운 웅이가 와서 깨우는 소리에 “오냐,  
 내강아지!”하고 덩석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머니는 애써 참고 자는 체하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웅이의 아버지)이  
 할머니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께서  
 타고 가실 택시를 불러 놓았어요.”

“싫어. 너희들이나 가거라. 난 죽어도 이 집  
 안 떠난다.”

“여기 계셔도 소용 없어요. 오후에는 새 주  
 인이 오는 걸요.”

“불효막심한 것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곳에 가두려는 게냐?”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만 고생하시면 곧  
 다시 이런 집을 사 드릴게요.”

아들은 할머니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자  
 꾸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  
 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침내 할머니  
 는 고집을 꺾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계단은 올라도 올  
 라도 끝없는 듯했습니다. 식구들이 밀고 당기고  
 하여 간신히 올라 갔지만 할머니는 그만 어지  
 림증이 났습니다. 세상이 일렁일렁 움직이고,  
 눈앞의 모든 물건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어지러워 눈을 뜨지 못  
 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팔  
 십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금



# 썬 트로피



트로피 샵? 그걸로 기념 아냐? SUN TROPHY  
 어디야? 12336 Lake City way  
 Seattle WA 98125  
 전화번호는? 367-4432  
 아 이런 시간이 지났잖아 / 363-9547

이 이빨! 웬따 싹뿔로 진달래 물든 입술을 썬  
 었습니다. 진달래꽃 두 아들이 건어 갑니다.  
 -꽃이랑 동이랑 같이 바꾸니를 머리에 쏘  
 고 조개를 캐러 갔습니다. 녀이는 마위 밑에  
 숨은 커다란 소라고둥을 주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길 견 생각하며 관책관책 뛰었습니다.  
 낙지도 잡고 조가비, 갯강, 뱀고둥들이 바구  
 니에 가득 찼습니다. 큰으로 할머니가 좋아하  
 시는 파래와 김을 한 보시기 들고 나면 해님  
 이 건넌척 머리에 주황 물감을 잔뜩 물어 썬  
 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윤별을 빼니다. 녀일이 두장 용라  
 운 물들은 뒷집에 있는 뿔뿔로다 예쁩니다. 뿔  
 진뿔진한 축이 구수한 땀 내음과 함께 나의의  
 손에서 팔고물로 변합니다.  
 -한여름 밤, 마음 동무들과 같이 뱀강으로  
 갑니다. 밤마다는 뿔을 가득 담은 커다란 북  
 율타입니다. 뱀천에 용라 여자들 먼저 울던 뿔  
 어졌습니다. 녀이도 울던 뿔이 들었습니다. 뿔  
 속에 잔뜩 누워 있던 글구들이 차르르 뿔이  
 집니다. 머리에도 뿔에도 글구들이 바짝바  
 짝 뿔뿔합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저승차를 주부친다고 이따  
 금 깨우곤 했습니다면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뿔  
 마다 꿈나라로 갔습니다. 꿈나라엔 진나는 힘  
 이 무척 많았습니다. 뿔간 조끼 입은 천사  
 가 모는 꿈마차, 깃털처럼 가벼운 꿈마차는 뿔  
 면 하늘을 건너 할머니의 고향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  
 동안 입고 있던 복은이의 옷을 환한 벗고, 갈  
 래머리를 뿔고 소매를 뿔고 걸었습니다. 아포  
 뿔 뿔도 다리도 힘이 다시 솟았습니다.  
 -축바구니는 마루 밑에 두었지. 꿈이랑 건  
 이 가져야지. 꿈이야, 꿈이야, 축 캐러 가져야! 뿔  
 레, 냐이, 축...뿔겉물이 많으면 엄마가 싫어  
 해야. 노란 장다리가 아련하게 피어 있는 수  
 례이네 난새발 가에 썰레준이 탐스럽게 용라  
 왔습니다. 껌천을 까먹으면 파인에를 맛보더  
 려웠습니다. 냐! 맛있겠네이. 예, 뿔먹기 시하하  
 뿔습니다. 야! 맛있겠네이. 냐, 뿔먹기 시하하  
 자, 큰새 한 아들의 뿔이 분이와 녀이의 입속  
 으로 사라졌습니다. 히히히... 니 이빨은 김을

아름과 머리는 근심어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어두운 밤에 누워있다 베란다로 나  
 가던 할머니는, 구름 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  
 타던 해님의 숨바꼭질에 그만 아찔해져서 베  
 란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식구들이 큰 소동  
 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는 죽을 고  
 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베란다엔 썰매 나가지 마세  
 요. 큰림뿔뿔합니다."  
 아들은 베란다를 유리창으로 막아 버리고,  
 할머니를 일찌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한  
 머니가 넘어져서 죽는 것만 염려했지, 외로와  
 서 죽는다는 사실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후, 할머니는 더욱 신음이 늘었습니다. 만화  
 이 마음에 안다고 상을 잃어 버리는가 하면,  
 "내 용을 봤지?"  
 하며 식구들을 응박지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누가 오기라도 하면 머니가 밤을 주지 않는  
 다고 거짓말로 고자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자니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식구들의 괴로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술은 할머니를 빼를 속도로 더욱 빠르게 했  
 습니다. 회미하던 동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  
 었고, 썰매를 때 다친 다리는 탄마다 아파서  
 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없는 잇몸도 이  
 썰 힘이 없어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도 먹  
 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어, 내가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세상에 태어나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제대로  
 호강 한번 못한채 죽어야 한다니 기가 막혔음  
 니다.  
 이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리에  
 누워 자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종일 자도 오  
 지 않는데 누워있는 것은 진저리가 나도록 싫  
 었습니다. 더구나 소변과 대변을 누를 땀의 쓴  
 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것은, 관공만한 할머니의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할머니는 꿈의 나라 천사가 보  
 면 초정상을 받았습니다. 꿈나라 천지에 할머니  
 니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반샤에는 못 앉힐만큼 고작 이런 아파트로  
 런 데려와서 떠나게 하더니..."  
 할머니는 자꾸만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위로 뿔 뿔을 뿔고 큰으로 삼대 독자 아들  
 하나 놓아 글이야 용이야 권렸건만, 풀안에 자  
 식이라더니 아들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또 할머니는 모든 것이 머  
 리 탓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느질도 할 줄  
 모르고 아무지지도 못하고, 남자처럼 걸걸 등  
 기나 잘하는 머느리... 정말 오랜 세월 한군  
 데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를끼리는 무엇이 그리 재미있  
 고 즐거우지, 허구한 날 다정하게 찬 사는 것  
 이 들 심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썰매를 때는 인정 많고 녀이 많다  
 하여 이들이 "녀이"였었는데, 지금 할머니의  
 마음에 인정이나 녀은 커녕 신술만 부를부를  
 뿔어오르고 있으니,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파트는 짐차했던 대로 간혹과도 견았습니  
 다. 종일 가도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습니  
 다. 무엇보다도 부진장으로 뿔아도는 시간은  
 커다란 간증이 되어 할머니를 가두었습니다.  
 누이리곤 아침 나침마다 찾아오는 해님과 파  
 람 하늘에 회구들이 그려 주는 여려가지 그림  
 을 보는 일입니다.  
 뿔로는 베란다에 서서 간 수 없는 나라가 뿔  
 버린 아파트 아래 세상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만물 큰 왕을들이 모여있는 고풍궁원입니다.  
 옛날 임금님의 포에 구멍을 뿔어 놓고, 탄마다  
 다 작은 사람들이 뿔강, 파랑 개미의 모습들  
 하고 뿔러뿔러하는 광경은 언제 보아도 재미  
 가 있습니다.  
 "하하하... 저 개미 뿔봐! 저건 가뿔뿔 뿔  
 예고, 저건 또 양산을 썰구면, 껌껌..."  
 외로움 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뿔하고  
 혼자 웃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해지셨어요. 만물이  
 나신 게 아니냐요? 탄마다 저렇게 혼자서  
 애걸 하시느군요."

<b>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b>	
이종현	\$500.00
변종혜	\$20.00
이종운	\$20.00
황동규	\$20.00
백웅기	\$500.00
이종건	\$500.00
강석동	\$500.00
김종구	\$20.00
이석주	\$500.00
이문재	\$20.00
김창환	\$20.00
정계양	\$100.00
김재홍	\$50.00
윤광남	\$500.00
고봉식	\$500.00
로젠 홀츠	\$100.00
김인국	\$50.00
최주찬	\$3,500.00
<b>건축기금 헌납자</b>	
태권도협회	\$800.00
김정부	\$300.00
노유생	\$20.00
심승빈	\$20.00
강성국	\$500.00
이경우	\$200.00
김영수	\$1,000.00
이규영	\$1,000.00
김종구	\$200.00
윤학덕	\$100.00
양용관	\$30.00
황우민	\$500.00
John Cox	\$2,100.00
대우	\$1,000.00
동화기업(주)	\$200.00
삼미(주)	\$300.00
삼성	\$500.00
삼호물산(주)	\$300.00
오양수산(주)	\$300.00
이전산업	\$200.00
한진	\$400.00
현대 Corp.	\$1,000.00
한국외환은행	\$2,000.00
거성산업	\$300.00
고려원양	\$300.00
구일산업	\$300.00
Unipac International	\$100.00
최우용	\$10.00
김지현	\$2.00
신창호	\$10.00
양승합	\$5.00
김종택	\$50.00
장순명	\$10.00
Bernardo Catillote	\$5.00
임호철	\$100.00
Rapoza Soon Kyung	\$5.00

오준모	\$30.00
무명씨	\$17.70
윤영흠	\$500.00
구경민	\$10.00
김창환	\$100.00
홍경선	\$100.00
양용관	\$30.00
박성수	\$50.00
Jae Dong Dreisow	\$30.00
유진욱	\$20.00
한일식품(정운영)	\$500.00
제일식품(조성교)	\$500.00
오리엔탈바베큐식당(이종길)	\$1,000.00
윤학덕	\$100.00
김종구(회계사)	\$200.00
유성우	\$30.00
고려대학교우회	\$500.00
C & K Meat Distributor	\$500.00
지윤두	\$50.00
전종모	\$20.00
한만섭	\$1,000.00
이희덕	\$20.00
일심교회	\$200.00
양계연	\$2,000.00
장석주	\$1,000.00
무명씨	\$15.61
이영욱	\$5.00
추선애	\$5.00
윤홍자	\$5.00
이창선	\$5.00
오명숙	\$5.00
엄애기	\$5.00
이상혜	\$2.00
코스모스 미용실	\$100.00
신강우	\$100.00
채승주	\$100.00
김홍대	\$100.00
김태하	\$50.00
김봉인	\$50.00
길순남	\$30.00
조순구	\$20.00
이상문	\$10.00
박성복	\$10.00
박귀남	\$10.00
안근식	\$10.00
김명환	\$10.00
이희철	\$10.00
권호경	\$10.00
김창현	\$10.00
구분악	\$10.00
신옥선	\$10.00
이상 17명 시애틀 한인노인회	

<b>회관건축기금 마련 메넌트 판매내역</b>	
1701 케버타인 기숙	\$20.00
1702 남택민	\$10.00
1706 이홍석	\$50.00
1707 김명규	\$10.00
1708 진정희	\$10.00
1709 김병란	\$10.00
1710 제니퍼 윤	\$10.00
1712 박난섭	\$10.00
1713 정성재	\$10.00
1714 김재경	\$20.00
1715 이월래	\$10.00
1716 박명자	\$10.00
1717 길행용	\$10.00
1718 이효재	\$10.00
1719 박명림	\$10.00
1720 오주용	\$10.00
1721 김정숙	\$10.00
1722 정정희	\$10.00
1723 광종태	\$10.00
1724 김재숙	\$10.00
1725 전경숙	\$10.00
1726 한양숙	\$10.00
1727 이영자	\$10.00
1728 이순로	\$10.00
1729 강은미	\$10.00
1730 김영복	\$20.00
1731 김원경	\$20.00
1732 장영신	\$20.00
0701 황동규	\$100.00
0702 김용철	\$10.00
0703 임주홍	\$10.00
0704 김승규	\$10.00
0705 윤미영	\$10.00
0706 강병철	\$50.00
0707 김서은	\$10.00
0708 박성수	\$10.00
0709 예정현	\$10.00
0710 김정이	\$10.00
0711 원지준	\$10.00
0712 김하용	\$10.00
0713 김정태	\$50.00
0714 이종록	\$10.00
0715 이상희	\$10.00
0716 정명훈	\$20.00
0717 박희영	\$20.00
0718 송병표	\$10.00
0719 오윤복	\$10.00
0720 김명환	\$20.00
0721 오윤철(1차)	\$10.00
0722 당석구	\$10.00
0723 조미자	\$10.00
0724 정진웅	\$10.00
0725 박이진	\$10.00
0726 조동완	\$10.00
0727 김의현	\$10.00
0723 이민재	\$10.00
0729 유은애	\$10.00

0730 이태형	\$10.00
0731 이종현	\$10.00
0732 서병권	\$10.00
1733 조아영	\$20.00
1734 이강선·이희정	\$20.00
1735 김명숙	\$50.00
1736 최리라	\$20.00
1737 이필자	\$10.00
1738 김송옥	\$50.00
1739 백수지	\$20.00
1740 김동숙	\$20.00
1741 김에스터	\$20.00
1742 이종숙	\$20.00
1743 최명환	\$20.00
1745 안마리아	\$30.00
1746 김현숙	\$10.00
1747 손경숙	\$10.00
1748 정일심	\$10.00
1749 이혜진	\$20.00
1754 박종규	\$50.00
1755 박상문	\$50.00
1756 이기원	\$50.00
0733 노두용	\$10.00
0734 고정옥	\$10.00
0735 김재일	\$10.00
0736 최범수	\$10.00
0737 문유기	\$10.00
0738 김성일	\$10.00
0739 김정부	\$10.00
0740 이 하이디	\$10.00
0741 김충현	\$20.00
0742 김인호	\$20.00
0743 이준근	\$10.00
0744 차혜숙	\$10.00
0745 정생근	\$10.00
0746 박정일	\$10.00
0747 강손식	\$10.00
0748 허정순	\$10.00
0749 한상열	\$10.00
0750 김용현	\$10.00
0751 이홍원	\$10.00
0752 신원재	\$10.00
0753 김성혜	\$10.00
0754 최은영	\$10.00
0755 홍경림	\$10.00
0767 이경구	\$10.00
0768 조은록	\$20.00
0769 이길수	\$15.00
0770 정동근	\$20.00
0771 주기립	\$10.00
0772 전구천	\$20.00
0773 김재길	\$10.00
0774 심웅섭	\$10.00
0775 김태복	\$100.00
1757 박동태	\$20.00
1758 강호영	\$50.00
1759 박재선	\$50.00
1760 윤병권	\$50.00
1761 서정범	\$20.00

1762 윤영근	\$30.00
1763 김상옥	\$100.00
1764 손명규	\$20.00
1765 장인재	\$10.00
1767 박봉희	\$20.00
0776 김인호	\$10.00
0777 박명준	\$10.00
0778 김광호	\$10.00
0779 홍윤선	\$20.00
0780 박은남	\$10.00
0781 김남규	\$20.00
0782 오윤철	\$10.00
(2차분)	
0783 이용직	\$15.00
0784 홍경선	\$10.00
0785 임의재	\$20.00
0786 이선희	\$10.00
0787 김윤곤	\$10.00
0788 전세영	\$10.00
0789 이동훈	\$10.00
0790 신경근	\$10.00
0756 고광춘	\$10.00
0757 김용자	\$10.00
0758 윤재인	\$10.00
0759 오병환	\$10.00
0760 박춘복	\$10.00
0761 김경구	\$10.00
0762 신길하	\$10.00
0763 무명씨	\$10.00
0764 이양남	\$10.00
0765 전기수	\$10.00
0766 오보영	\$20.00
0791 박경희	\$10.00
0800 HINTON Z	\$10.00
101 엘끄 가러스	\$20.00
102 스티브 디러이	\$15.00
103 빌 달턴	\$20.00
104 아레인 아리자	\$20.00
105 프랭크린 잔	\$20.00
106 마사이 아텐	\$10.00
127 마모루 까또	\$10.00
128 케네스 워트모어	\$12.00
129 리차드 리드	\$12.00
130 니코 피샤	\$25.00
131 스티브 그르드마카	\$50.00
132 로저송	\$15.00
133 요꼬 로버트	\$10.00
134 티파니 다가오	\$10.00
135 우메노 베카	\$20.00
136 마이클 판버스	\$10.00
137 켈빈 더스톤	\$10.00
138 갠지 오노	\$10.00
139 마드린 오노	\$10.00
140 마끼코 카바나	\$12.00
141 프랭크린 기브스	\$27.00
142 히로유기 다카오	\$15.00
143 가즈에 반즈	\$21.00
144 로버트 파사라파	\$20.00
145 빌리암 산드스	\$21.00

146 죠 스파시아니	\$20.00
147 조라 보카	\$17.00
148 메비드 쿠퍼	\$10.00
149 엘렌 호카슨	\$20.00
150 세이코 라무니	\$10.00
151 다케시 니시무라	\$21.00
152 노부코 퀴인	\$10.00
153 마끼코 커타무라	\$15.00
154 라에코 크린프	\$25.00
155 데이비드 바커	\$15.00
156 노보루 우에노	\$45.00
157 고에즈 쿠보	\$25.00
158 히로시 고마	\$161.00
159 이쿠코 노드퀴스트	\$10.00
160 치카코 라이베티	\$12.00
161 고도 도시유키	\$15.00
162 가즈코 버퍼스	\$12.00
163 마스미 터셀	\$15.00
164 가여코 파가수기	\$10.00
165 마루다찌야키	\$15.00
166 오카 고지	\$15.00
167 요코 탐슨	\$15.00
168 히로미 더스톤	\$30.00
169 가즈코 크레이파츠	\$12.00
170 유코 마크	\$10.00
171 게이코 킹	\$10.00
172 유끼코 콕스	\$21.00
173 사찌코 그램지	\$12.00
174 이추코 가야수도	\$100.00
175 마리코 구빗마하	\$10.00
176 마사코 워더모어	\$15.00
177 마즈코 호프만	\$10.00
178 게이코 사사키	\$15.00
179 테드 케스턴	\$30.00
180 치야키 에인즈왈츠	\$15.00
181 게이코 히티	\$10.00
182 세추코 버드	\$15.00
183 마사코 얼	\$15.00
184 히로코 셀리반	\$10.00
185 요코 아트	\$12.00
186 찌카코 월드	\$10.00
187 준코 웨렌	\$15.00
188 후미에 클라크	\$21.00
189 미야코 카나기	\$15.00
107 마틴반	\$25.00
108 기미코 이노우에	\$10.00
109 버트 아텐	\$10.00
110 크리스 휘아라	\$20.00
111 데니스 호란	\$10.00
112 도미닉 호란	\$10.00
113 헬렌 다우니	\$10.00
114 프랭크린 미사코	\$20.00
115 코라손 안셀모	\$10.00
116 머라 샌드스	\$21.00
117 데루코 리드	\$12.00
118 잔 킹	\$20.00
119 스티브 펠드	\$10.00
120 야에코 라이제돌브	\$12.00
121 벌 데프슨	\$12.00

122 아나스타시오 버라뉴바	\$10,00
123 라오이벨 차피탈	\$12,00
124 베니타 벤자	\$12,00
125 마누엘 화늘	\$10,00
126 스티브 파가수기	\$10,00
190 노리코 카도	\$15,00
191 오노 요시즈쿠	\$15,00
192 요코 모리스	\$15,00
193 나베타니 미사노리	\$15,00
194 미츠헬	\$20,00
195 존얼	\$15,00
196 쇼나단 스폴	\$20,00
197 세프코 무나카타	\$12,00
198 미이코 마추라	\$10,00
199 노리코 채피탈	\$12,00
200 히로코 송	\$15,00
1901 이복남	\$10,00
1902 장재숙	\$10,00
1903 최충식	\$10,00
1904 이종운	\$50,00
0032 토니 아폴로	\$20,00
0033 류창명	\$10,00
0034 라드 톤킬리오	\$10,00
0035 이수정	\$10,00
0040 벤 웬걸	\$10,00
0073 정운영	\$20,00
0074 최광우	\$20,00
0044 폴틸노랜	\$20,00
0045 압스트롬	\$30,00
0046 래리 브리크	\$20,00
0047 후랭크 획	\$30,00
0038 메추 모리슨	\$10,00
0039 루미 하마다	\$10,00
1703 백인희	\$20,00
1704 조경희	\$20,00
1705 권경철	\$20,00
1750 제일자동차정비	\$100,00
1751 백남숙	\$20,00
1752 최창익	\$50,00
1753 장용선	\$100,00
3201 이선주	\$50,00
3202 박재선	\$10,00
3203 이병숙	\$10,00
3204 박소희	\$10,00
3205 이견일	\$10,00
3206 이영주	\$10,00
3207 가와무라 진희	\$15,00
3208 이말애	\$10,00
3209 이은서	\$10,00
3210 차승철	\$10,00
3211 정지수	\$10,00
3212 홍석희	\$10,00
3213 김줄리	\$10,00
3215 리 브랜타	\$20,00
3216 이정구	\$10,00
4830 김성훈	\$50,00
4831 강성국	\$50,00
4832 이경우	\$20,00
4833 고상선	\$10,00

4834 무명씨	\$30,00
4835 심상현	\$100,00
4836 강용태	\$20,00
0043 래리 후래밍	\$10,00
0042 캔 조핸슨	\$10,00
0041 존 에반스	\$10,00
0050 윌리스 터키(스노호미쉬 군수)	\$25,00
0061 김형수	\$10,00
0062 이근호	\$10,00
0063 심진섭	\$10,00
0064 박건우	\$10,00
0065 박영숙	\$10,00
0079 조승옥	\$100,00
0000 윤홍남	\$100,00
1023 손선근	\$10,00
1024 심재환	\$20,00
1012 김해봉	\$20,00
1025 켄센이	\$10,00
1026 이규진	\$10,00
0066 팀힐(킹카운티 군수)	\$10,00
4501 이병도	\$10,00
4502 이규영(제리사)	\$1,000,00
4504 이완철	\$10,00
4505 이시연	\$10,00
001 최진건	\$50,00
002 유재숙	\$10,00
003 박재성	\$100,00
004 고바야시 마사히사	\$100,00
005 황경옥	\$10,00
006 미셸 뉴버트	\$10,00
007 겐지 미추꾸찌	\$100,00
008 도시미 테라다	\$100,00
009 권명순	\$10,00
010 에이치 하바라	\$100,00
011 김홍섭	\$10,00
012 사부로 하시모도	\$100,00
013 조 그레이스	\$10,00
014 조병태	\$10,00
015 김유경	\$20,00
016 김성유	\$50,00
017 황명복	\$20,00
018 김중호	\$20,00
019 이수창	\$10,00
020 요시하사 이노우에	\$20,00
021 메튜 제이도호티	\$20,00
4507 궁경정	\$10,00
4508 무명씨	\$100,00
4510 Riverside Beverage Co.	\$150,00
1906 김애숙	\$20,00
1907 이석우	\$10,00
1908 구상모	\$20,00
1909 김원석	\$10,00
1910 이창도	\$20,00
1905 강대봉	\$20,00
4801 우시찬	\$100,00
4802 김한규	\$10,00
4803 김난경	\$10,00
4804 김주경	\$10,00
4805 랠프 밀러	\$100,00
4806 지미 아이쉬	\$10,00
4807 김은실	\$10,00
4808 M. 이취다	\$10,00
4809 동국제강주식회사 LA지점	\$100,00

4810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 LA지점	\$100,00
4811 ACME Trading & Supply Co.	\$250,00
4812 강원산업주식회사 LA지점	\$100,00
4813 Lampros Steel, Inc	\$500,00
4814 인천제철주식회사 LA지점	\$100,00
4826 채승호	\$100,00
4827 이재명(새로나식품)	\$100,00
4828 백원기(코리언저널)	\$100,00
4829 박덕양	\$20,00
1001 김진아	\$10,00
1002 팀 킬터	\$10,00
1003 디 헤리스	\$10,00
1004 오엔 시어	\$10,00
1005 앤디 칼빈	\$10,00
1006 마이크 코프렌	\$10,00
1007 도로시 야벨	\$10,00
1008 랠리 해리스	\$10,00
1009 레네이 맥카딩스	\$10,00
1010 조 스토폴	\$20,00
1011 알리 셰보레 바디숍	\$50,00
1013 샌드라 오앤캠프	\$10,00
1014 셸리 켄센	\$10,00
1015 라나 데스캔디스	\$10,00
1016 정옥아	\$10,00
1017 이옥란	\$10,00
1018 토니 피셔	\$10,00
1019 정연숙	\$10,00
1020 제미 해리스	\$10,00
1021 오재석	\$10,00
1022 북경루	\$100,00
2950 임성원	\$10,00
3000 한상구	\$10,00
2929 차상철	\$10,00
2927 최창용	\$10,00
2999 김승실	\$10,00
2901 박윤진	\$10,00
022 마이클 다니	\$20,00
023 데이비드 로저스	\$20,00
024 닐 샤랄로	\$20,00
025 야콥 베가	\$20,00
026 이종길	\$10,00
027 김정화	\$100,00
028 이영환	\$50,00
029 신광재	\$30,00
030 심상연	\$30,00
031 강성진	\$20,00
088 최주찬	\$200,00
100 유광렬	\$15,00
4454 한미회	\$10,00
4455 김윤아	\$10,00
4456 김윤호	\$10,00
4457 홍기암	\$10,00
4458 테일러	\$10,00
4459 김동욱	\$10,00
4460 김동은	\$10,00
4461 김동민	\$10,00
4462 이재임스	\$10,00
4463 김재경	\$10,00
4464 김재용	\$10,00
4465 김동한	\$10,00
4466 안조	\$10,00
4467 안재천	\$10,00
4468 윤병권	\$10,00

4469 송명숙	\$10,00
4470 윤정옥	\$10,00
4471 박선희	\$10,00
4472 박연희	\$10,00
4473 박식완	\$10,00
4474 박순애	\$10,00
4475 안재영	\$10,00
4476 오춘석	\$10,00
4477 최영현	\$20,00
4482 조국남	\$20,00
4483 안승배	\$100,00
4481 무명씨	\$10,00
4488 에드워드 가드	\$10,00
4490 경애	\$10,00
3725 권영민	\$200,00
3726 이영호	\$100,00
3727 김진홍	\$20,00
3728 한동조	\$100,00
3729 김재승	\$30,00
3730 김중환	\$100,00
3731 문영주	\$20,00
3732 신명협	\$20,00
3738 무명씨	\$10,00
3745 김상목	\$200,00
3746 이승규	\$50,00
3747 송재석	\$50,00
3748 김학병	\$60,00
3749 박법신	\$50,00
3750 문희동	\$200,00
301 싸꾸마	\$100,00
302 브라운	\$10,00
303 노리야시코 시카바	\$10,00
304 토니 오비네타	\$10,00
305 요시코	\$10,00
306 마이클 로드리제	\$10,00
307 야마다	\$10,00
308 야마모 와다나카	\$10,00
309 겐지 오즈카	\$10,00
310 유끼코 오즈카	\$10,00
311 노쵸 오에무라	\$10,00
312 미슈즈 우에부라	\$10,00
313 쇼지 모리	\$10,00
314 노리아기 타도코로	\$10,00
315 토마스 토너	\$10,00
329 드렉스 아메일	\$10,00
330 그렌 브리제	\$10,00
331 크리프 야시타	\$10,00
332 더글라스 아일렌	\$10,00
333 켄 하야시	\$50,00
334 스코트 하워드	\$10,00
335 히로코 셰플러	\$10,00
336 유끼코 메이내드	\$10,00
337 브루스 존슨	\$10,00
338 야시오 가즈베야시	\$10,00
339 노리코 요시하라	\$10,00
340 히로미 오노	\$10,00
341 타카시 즈카모토	\$10,00
342 히로토시 모리꾸찌	\$10,00
343 이사카와	\$10,00

344 요코 그렌	\$10,00
345 스코트 그렌	\$10,00
346 노부요시 아마야	\$10,00
347 게이코 시라하마	\$10,00
348 도카오 나가야마	\$10,00
349 라차드 헨드릭스	\$10,00
350 요코 알렌산드	\$10,00
351 하세가와	\$10,00
386 유카끼 타테	\$10,00
387 가즈에 타테	\$10,00
3736 한상국목사	\$10,00
3713 김종훈	\$10,00
792 선희미용실	\$10,00
793 베린저 자동차병원	\$20,00
794 오수당	\$20,00
795 이성영	\$10,00
796 최순자	\$10,00
797 무명씨	\$10,00
798 무명씨	\$20,00
799 김성기	\$10,00
1911 서정웅	\$10,00
1912 박복경	\$10,00
1923 김현숙	\$20,00
1924 김무웅	\$21,00
1925 최광복	\$10,00
1926 동청	\$20,00
1928 조원일	\$30,00
1929 김동완	\$10,00
1990 박만기	\$20,00
4620 임윤숙	\$100,00
4621 이종숙	\$20,00
4645 서정희	\$15,00
4623 김상희	\$10,00
4650 방정열	\$20,00
4648 조하홍	\$50,00
388 레이몬드 맥그리더	\$10,00
389 슈이찌 나가타	\$10,00
390 히로시 야마무라	\$10,00
391 겐지 다카세	\$10,00
392 이큐오 가르시아	\$10,00
393 데이비드 웨펜버거	\$10,00
394 레이코 웨인	\$10,00
395 히로유키 사사키	\$10,00
396 미즈에 웨펜버거	\$10,00
397 시케루 아라키	\$10,00
398 노브코 하야시	\$10,00
399 크라리 야수타가	\$10,00
400 캐드린 브리제	\$10,00
2751 이관호	\$10,00
4522 이하실	\$15,00
4519 Lee Grocery Co.	\$100,00
4509 N.W. Dist Co.	\$50,00
901 김잔난	\$10,00
902 김명원	\$10,00
903 김두옥	\$10,00
904 손취섭	\$10,00
905 이문함	\$10,00
906 유정애	\$10,00
907 노상준	\$100,00

908 Pat Yocrey	\$10,00
909 Ingobert Holty	\$10,00
910 Tammy Barga	\$10,00
911 Stephen Patterson	\$10,00
1769 정경섭	\$20,00
4649 석대영	\$50,00
4602 임영학	\$20,00
4601 김홍재	\$50,00
4642 이광윤	\$10,00
4643 손석규	\$20,00
4618 이진기	\$10,00
4644 전현설	\$20,00
4619 박운호	\$10,00
4620 김준영	\$20,00
1034 마이클 백스트롬	\$10,00
1035 그리고리 티드	\$10,00
3096 Charies Herrmann	\$10,00
4101 그레이스 황	\$30,00
4102 무명씨	\$20,00
4104 김경신	\$10,00
4103 윤경	\$20,00
4105 김종훈	\$10,00
4111 한정일	\$10,00
4112 김병섭	\$10,00
4113 쇼라인 그래픽	\$10,00
4114 엘버 바디숍	\$10,00
4115 Lee's Auto Repair	\$10,00
4116 피어스 현대	\$10,00
4117 김수정	\$10,00
4118 인영식(2차분)	\$10,00
4119 M/C 미니마켓	\$10,00
4120 브라이어 그로서리	\$10,00
4121 영스마켓	\$10,00
4122 유창도	\$10,00
4123 소재환	\$10,00
4124 송기환	\$10,00
4125 김영옥	\$10,00
4126 박영범	\$10,00
4127 이건종	\$10,00
4128 황의태	\$10,00
4129 최수현	\$10,00
4131 임정식	\$10,00
4149 임인자	\$20,00
4150 한광일	\$10,00
912 김인국	\$10,00
452 조순구	\$10,00
453 김영자	\$10,00
454 설양길	\$10,00
455 유봉묵	\$10,00
456 이선이	\$10,00
457 김귀연	\$10,00
458 노창순	\$20,00
459 노도술	\$10,00
460-462 노일수	\$20,00
461 이형화	\$10,00
463 이창선	\$10,00
464 엄상임	\$10,00
465-474 장길수	\$20,00
466 김규길	\$10,00

467 김봉이	\$10,00	208 하종해	\$10,00	69 노리꼬 하잉그	\$20,00
468 허옥연	\$10,00	209 어대영	\$10,00	83 김현정	\$10,00
469 박을영	\$10,00	212 이희경	\$10,00	84 이선경	\$10,00
470 박영옥	\$10,00	213 김희범	\$10,00	87 김경옥	\$20,00
471 박성녀	\$10,00	214 김은자	\$10,00	89 김재옥	\$10,00
472 이순정	\$10,00	000 테비콜벳	\$10,00	93 이호열	\$10,00
473 박돌이	\$10,00	241 황운영	\$10,00	94 박용문	\$10,00
475 백필환	\$10,00	244 솔츠영숙	\$10,00	95 정혜승	\$10,00
476 양단용	\$10,00	247 신원택	\$10,00	96 광영자	\$10,00
477 주이정	\$10,00	248 신영미	\$10,00	97 조미영	\$10,00
478 조화진	\$10,00	249 박종대	\$10,00	98 김골드	\$10,00
479 조응진	\$10,00	250 박금주	\$10,00	1390 장병문	\$10,00
480 엄승인	\$10,00	000 조진호	\$10,00	1378 송천호	\$50,00
481 강복부	\$10,00	207 김성일	\$10,00	1366 김영봉	\$10,00
483 이상철	\$20,00	000 하동해	\$10,00	1394 이병학	\$10,00
499 홍광덕	\$10,00	1030 밥볼드윈	\$10,00	1353 한효섭	\$20,00
3401 차용하	\$200,00	1031 질리드	\$10,00	1389 신석관	\$20,00
3402 이규호	\$200,00	1032 켄프리처	\$10,00	1333 정성훈	\$30,00
3403 임재분	\$10,00	1033 로디오버크리프	\$10,00	1395 닉도균	\$20,00
3404 차명숙	\$10,00	401 이전향	\$50,00	1375 심재일	\$10,00
3405 박호세	\$20,00	410-411 김유신	\$20,00	1374 정정춘	\$10,00
3006 홍승주	\$100,00	420-429 Cruso & Fredricks	\$100,00	1377 심상우	\$10,00
3407 House of Roses	\$20,00	4401 장낙종	\$50,00	1381 최명완	\$10,00
3408 강호진	\$20,00	4403 이점태	\$500,00	1385 이동호	\$10,00
3409 권영호	\$20,00	4404 궁창용	\$20,00	1388 이정삼	\$100,00
3410 Zip Market	\$20,00	4405 김선태	\$50,00	1379 소건식당	\$10,00
3411 김근섭	\$25,00	4406 임원순	\$30,00	1393 강세철	\$100,00
3412 홍덕표	\$30,00	4407 김야구감독	\$20,00	1391 윤병환	\$20,00
3413 차용춘	\$40,00	4408 조성태	\$100,00	1392 박정석	\$10,00
3414 최성길	\$10,00	4410 무명씨	\$10,00	4670 Robert Lucey	\$10,00
3415 홍빈기	\$40,00	4411 조용성	\$100,00	4669 고시방	\$10,00
3416 김광석	\$20,00	4412 오인철	\$100,00	4613 김태현	\$10,00
3417 최희진	\$50,00	4413 이진우	\$100,00	4614 Ronald Griffin	\$20,00
3418 조상호	\$50,00	4414 이병익	\$10,00	4615 최창만	\$20,00
3419 김종식	\$30,00	4415 팀타오	\$20,00	4633 전황성	\$10,00
3421 이상수	\$100,00	4416 회정엄마	\$10,00	4635 오상문	\$10,00
1927 김달지	\$10,00	4417 태화자	\$10,00	4637 임영철	\$10,00
1931 현식	\$20,00	4418 최병택보험	\$100,00	4616 한선영	\$10,00
1932 현미경	\$10,00	4419 노성길	\$10,00	4617 박순균	\$10,00
1933 김현정	\$10,00	4420 장여행사	\$10,00	4623 안무실	\$50,00
1934 김수정	\$10,00	4421 정익수	\$10,00	4624 강화남	\$10,00
1935 김애덕	\$10,00	4422 장수남	\$50,00	4622 유철용	\$10,00
1936 김강식	\$100,00	4423 정무길	\$10,00	4625 이한형	\$10,00
2752 김유영	\$10,00	4424 구현기	\$10,00	4626 이찬영	\$10,00
3059 정윤환	\$10,00	4425 김옥영	\$10,00	4627 성성모	\$10,00
3100 백철현	\$15,00	4426 허신	\$50,00	4629 조만식	\$10,00
3056 양대수	\$20,00	4427 전승원	\$50,00	4628 광성국	\$10,00
3035 David Sellen	\$10,00	4428 김유영	\$100,00	4630 이형복	\$10,00
3060 박기숙	\$10,00	4429 99 Body Shop	\$25,00	4647 김태권	\$20,00
3058-3099 Earl Ridgewell	\$20,00	4431 이길송	\$10,00	4651 김종근	\$10,00
099 이규완	\$10,00	4433 안형천	\$10,00	4652 민명숙	\$10,00
081 강세홍	\$100,00	4451 아리가도	\$50,00	4653 윤영자	\$10,00
4511 Clark Dist, Co.	\$150,00	4452 박영일	\$10,00	4654 홍원태	\$10,00
4512 Friendly Dist, Co.	\$100,00	4453 허권	\$10,00	4655 박장우	\$10,00
0000 Crown Dist, Co.	\$100,00	1036 조기제	\$10,00	4656 김효영	\$10,00
202 김영복	\$10,00	1037 James Bette	\$10,00	4657 Sue Mew	\$10,00
204 우정자	\$10,00	1038 스티브 케인	\$10,00	4658 김옥진	\$10,00
205 이연순	\$10,00	4837 김일영	\$20,00	4659 이춘남	\$10,00
000 김삼순	\$10,00	68 김미형	\$10,00	4660 박복순	\$10,00

4668 홍인숙	\$5,00
2301 윤원우	\$10,00
2301 김두환	\$10,00
2303 신동선	\$20,00
2305 Bob & Sandi	\$10,00
2307 박상숙	\$10,00
2313 조병권	\$10,00
2309 Jim Russell	\$10,00
2310 레이 음	\$10,00
2311 김우식	\$10,00
2312 이영희	\$10,00
2313 김병학	\$10,00
409 이상욱	\$10,00
412 이상문	\$10,00
413 박연출	\$10,00
414 김봉희	\$10,00
415 김재인	\$10,00
416 광분습	\$5,00
417 한정애	\$10,00
418 김은건	\$10,00
430-434 Bill Pillandina	\$50,00
482 백남정	\$10,00
487 유정자	\$10,00
491 황용준	\$10,00
492-494 김기남	\$30,00
495 최채선	\$10,00
496 양희영	\$10,00
497 이봉선	\$10,00
498 문선근	\$10,00
499 홍광덕	\$10,00
1731 김원경	\$20,00

건립기금 내신분	
사랑방	\$310,00
임창원	\$100,00
김정태	\$50,00
골프협회	\$1,000,00
임용근	\$1,000,00

안녕하세요

혹은 수락하신분이 계시면  
관미화로 연락 해주시면  
대안해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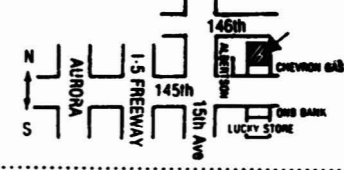
# 선 희 미 용 실

남녀 헤어컷·신부화장 맛사지전문  
피부미용상담



한국·일본·미국 면허취득 20여년 경험으로  
항상 여러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 367-2168



1551 146th St. N.E.  
Seattle, WA 98155

## 공인회계·세무·장부정리

이석주·박현철  
공인회계사무소

☎ 624-2727, 624-2763

- 재무제표작성
- 세무보고 및 세무계획
- IRS 및 주정부 세관감사 서비스
- 비즈니스·개인 재무상담
- 컴퓨터 장부정리
- 기타 C.P.A. 업무

1100 Virginia St, Suite 201  
Seattle, WA 98101  
(at Denny and Fairview)



【레스토랑】	【자동차정비】	【한인식품점】
고향집(T,K,CAFE) ..... 473-1718	레이크우드자동차정비 .. 582-1422	알파마켓 ..... 922-8997
경원식당 ..... 581-0607	레이크우드자동차정비 ... 588-983	아시안마켓 ..... 531-7276
국빈의집 ..... 363-5507	발린저자동차병원 ..... 363-3377	에버렛동양식품 ..... 347-3333
국일관 ..... 582-7720	FIRST 자동차정비 ..... 762-5844	오로라동양식품 ..... 362-5575
궁전 ..... 584-2862	FLANERY'S정비 ..... 475-2766	부한식품 ..... 588-7300
귀빈원 ..... 588-9262	Kim's Auto ..... 735-3349	중앙식품 ..... 762-5620
닝쿨집 ..... 584-1711	Lee's Automotive ..... 362-4449	FERN HIKK MINI MARKET
대화반점 ..... 474-0424	MOUNTLAKE TERRACE AUTO	..... 473-3819
도쿄테리야끼하우스 ..... 623-1916	..... 672-4544	제일식품 ..... 774-4103
무궁화 ..... 584-1865	REEDOM트랜스및션 ... 922-9930	오대양식품 ..... 365-9844
무지개식당 ..... 838-7744	SEATTLE KIM'S AUTO REPAIR	그랜드식품 ..... 365-1500
미락 ..... 839-6522	..... 524-6005	한일식품 ..... 742-2011
백천 ..... 625-0356	【보험업】	한남식품 ..... 874-5665
북경반점 ..... 952-1787	강성국에쿠터블보험 ..... 838-9218	켄트상회 ..... 852-8388
불고기집 ..... 581-1619	박건홍에쿠터블보험 ..... 522-7179	김치마켓 ..... 475-6128
사권반점 ..... 365-9174	등대보험 ..... 584-8818	리스식품마켓 ..... 762-5220
서북반점 ..... 244-8450	A.L.WILLIAMS ..... 537-1977	아리랑식품 ..... 456-1858
서울식당 ..... 459-3364	류창명종합보험 ..... 362-2692	장미상회 ..... 941-8144
신라 ..... 623-9996	김해봉종합보험 ..... 774-8508	새한식품 ..... 762-5406
쇼건 ..... 941-5058	메트로폴리탄종합보험 ..... 455-0650	남대문식품 ..... 643-4244
아리가도 ..... 546-3328	RYU'S INSURANCE ..... 364-2450	아시안마켓II ..... 582-1158
아카사카 ..... 946-3858	최병택종합보험 ..... 362-8385	시애틀타스마켓 ..... 361-7094
아서원 ..... 473-1180	뉴욕생명보험 ..... 597-7100	동양식품잡화도매 ..... 838-2684
영미점 ..... 623-3112	동청보험 ..... 564-2515	V & H MARKET ..... 783-4611
영빈관 ..... 588-4716	최진이종합보험 ..... 362-8385	KOREAN BAKERY ..... 584-8626
우래옥 ..... 581-1115	노승렬뉴욕생명보험 ..... 537-0060	새로나식품 ..... 839-6255
일미스시바 ..... 588-7977	【여행사】	삼양식품 ..... 584-3895
왕궁식당 ..... 622-1936	김의여행사(타코마) ..... 584-5808	
태화각 ..... 458-4020	김여행사(시애틀) ..... 624-2227	
하이디식당 ..... 472-0999	대한여행사 ..... 952-5595	
한일각 ..... 587-0464	한국여행사 ..... 542-4504	
향촌식당 ..... 584-8688	신세계여행사 ..... 582-2538	
해피테리야끼 ..... 575-8575	태평양여행사 ..... 767-7390	
B,B,Q,CENTER ..... 771-3700	타코마여행사 ..... 582-0303	
Don's coffee shop ..... 824-2038	장여행사 ..... 523-7057	
HISAGO ..... 363-1566	서울관광여행사 ..... 941-5588	
HOUSE OF CHOI ..... 426-3073	서울관광여행사 ..... 838-8060	
MIKIDO ..... 622-5206	패스포트여행사 ..... 365-6755	

# 88한인록 발간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8년도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기념 특집으로 워싱턴주 전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총망라하여 영구보존용으로 한인록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88 한인록 광고비의 일부를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충당코저 하오니 내집을 마련하는 마음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주요 내용
  - ① Blue Page :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 ② White Page : 개인주소록(ABC순)
  - ③ Yellow Page : 산업정보, 업소 및 단체업소, 회사등
  - ④ Pink Page : 생활정보, 긴급정보, 주요상식등
- 한인록 수록대상
 

워싱턴주 전지역 교민대상, 개인업소, 단체업소, 회사 및 각 단체 주소 및 광고
- 규격(크기) : 가로8인치 X 세로11인치
- 발행부수 : 약10,000부 예상, 400페이지 내외
- 발행예정일 : 1988년 8월31일
- 주소록 및 광고접수 마감 : 1988년 5월31일
- 접수 및 연락처 :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편집실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206)362-4500  
P. 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 한인록 수록 신청 방법
 

열 양식에 기재하신후 위 주소로 보내시거나 각 한국마켓, 식당에 비치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광고 신청 방법
 

아래 양식에 의해 신청하시거나 한인회에서 보낸 광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단 광고지면의 우선권은 선착순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한인회에 문의 바랍니다.

## ■ 한인록 기재 신청원(개인)


이름	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집	직장

## ■ 한인록 기재 신청원(업소 및 회사등)

업소이름	한글	
	영문	
업소주소		
전화번호	집	직장
소유자이름	한글	
	영문	
소유자주소		

## ■ 광고 신청서(업소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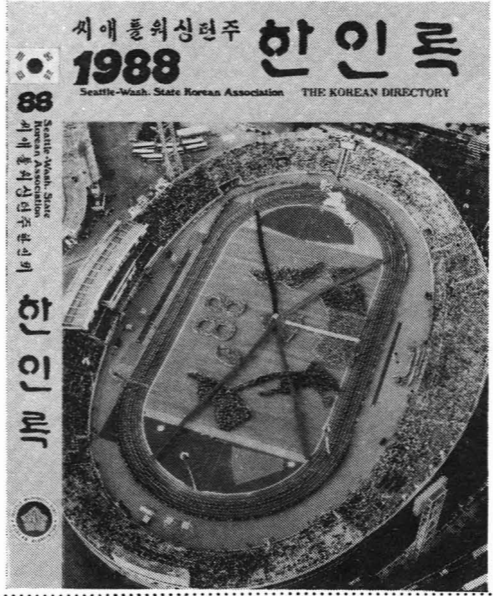
- 1) full page(뒷장, 박록 color) \$2,000.00(01업소)
- 2) full page(뒷장, 안록 color) 1,500.00(01업소)
- 3) full page(앞장, 안록 color) 1,800.00(01업소)
- 4) full page(일반페이지 color) 1,200.00(05업소)
- 5) 1/2 page color 600.00(10업소)
- 6) 1/4 page color 300.00(20업소)
- 7) full page 일반페이지 흑백 800.00(05업소)
- 8) 1/2 page 일반페이지 흑백 400.00(10업소)
- 9) 1/4 page 일반페이지 흑백 200.00(20업소)



· 상 · 록 · 수 ·

기쁘게 보내고 받아서  
즐거운 꽃 선물  
출산·생일·입학·졸업·결혼  
장례식·개업·각종 행사 꽃 취급

Jin Ho Chang  
—————(206)367-6432—————  
837 N.E. North Seattle, WA 98125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한인록 편집위원회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최주찬  
이사장 백웅기

# 『편집후기』



1. 한많은 셋방살이라고 했던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지난 4월 23일(?)인가 이삿짐을 싣고 다운타운(우체국앞) 어느 조그마한 이층집으로 또한번 한인회 사무실이 옮겨졌다.  
뜨거운 열기속에 한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너도나도 기급헌납등...폐 난트 구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초추의 양광이 쏟아지는 어느 가을날 수많은 교민들의 열기와 환호속에 「한인회관 임당식」을 상상만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는가? 나머지 시간...  
•우리 한번 그 정성과 열기를 모아 함성이 쏟아지는 「회관 임당식」에서 만나는 시각까지 힘을모아볼이 어떨랄지?  
2.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인파와 그 어느때보다도의 관심속에 초대형 「한국의 날」 행사가 치뤄졌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손자의 손을잡고...진정 하나가 되던 그날이었다. 하늘에는 만국이 태극기 또 대형 호룡이가 우리의 날 한국인의 날 잔치를 흥백 축하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의 행사에 참석하려했노라고 약속은 했었지만 이번이 공수표를 떼던 주지사님도 이번에는 폼짝없이 참석을 하고 말았다. 「우리의 힘」과 「우리들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꼭 참석을 시켜 보겠다면 최추찬 회장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3.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기 2000년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국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인도·중국·브라질을 포함한 한국이 될것이라고 어느 경제전문지를 소개한적이 있다. 글쎄?...제발 그렇게 되어 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더구나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다소 편해지지 않겠나하고 그저 웃어 본다. 그도 그럴듯한것이 요즘 세상은 운통 한국이야기인것 같이 착각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민주화운동이 그렇고 올림피주최국이란것이 그렇고 더우기 40만대를 넘어선 현대자동차가 더욱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엇그제는 또 한국인 이민정착 과정에 관한글이 이곳 신문에 두페이지나 할애하여 실기도 해 더욱더 그러하게 느껴진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움직여갈(?) 우리민족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하나가 되어 작은 호랑이의 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반목·질시·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습성을 떨쳐버리고 가슴을 열고 멋진 우리 한인의 모습을 보여줄때가 온것같다. 아마 그들은 어디선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추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가 되어 하나로 뭉치는 데 더이상 인색하지 말자.



## 최병택 종합보험

☎ 362-8385(사무실)  
854-3234(집)

좋은 보험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에

성실한 대리인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생명·은퇴·교육·사업·투자·자동차·건강·주택·본드외

15017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올림피 레스토랑

장미로 장식된 레스토랑



새벽미용으로 꾸민 레스토랑

# 올림피 레스토랑



100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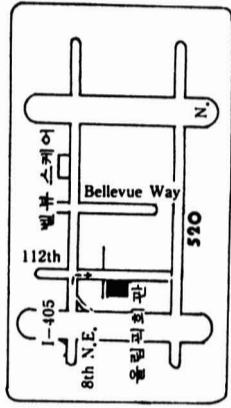
가정요리  
행복  
결혼  
합

오시기전에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 한식 일식전문
- 단체 손님 예약
- 완벽한 주차시설
- 즉석불고기
- 차돌배기
- 캐이더링 서비스(큰잔치 또는 파티음식 주문)
- LA에서 요리사 초빙
- 연예식 200석 완비
- 연중무휴
- 즉석불고기
- 주물럭

455-9305

1200-112th N.E. Bellevue, WA 98004





*Ming's*

# SALUTES KOREA

## Past and Present



*Discover the Pacific region's finest Asian antique, art and home furnishings gallery. Journey through 5,00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Select works of art from the Silla, Koryo and Yi Dynasties. Chests, screens, paintings, celadon, jewelry, porcelains, folk art, and much more. A.E., M.C., V., accepted. Certified appraisals, shipping worldwide offered. Free parking. Member Royal Asiatic Society, Member Mid Am Antique Appraisers Association.*

*Hours: Monday-Saturday 10:00 a.m. - 5:30 p.m.  
Sunday 12:00 p.m. - 5:00 p.m.*



*International Antique and Art Importer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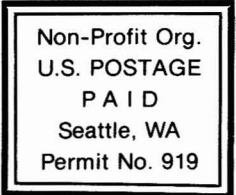
*10240 Main Street, Old Bellevue, Washington 98004 Tel: 206-462-4008 Fax: 206-453-8067*



시애틀 워싱턴·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MR. HAN MAN S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